

文學碩士 學位論文

불국사 경내 출토
귀면문암막새의 변천과정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 化 財 學 科

金 有 城

2007年 6月

불국사 경내 출토
귀면문암막새의 변천과정

指導教授 金 昌 鎬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6月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 化 財 學 科

金 有 城

金有城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慶州大學校 大學院

2007年 6月

목 차

I . 머리말.....	1
1. 연구범위와 목적.....	1
2. 연구의 동기와 방법.....	3
II . 귀면문암막새의 개요.....	7
1. 정의.....	7
2. 출토현황과 연구성과.....	9
III . 귀면문암막새의 분류.....	15
1. 각부 명칭.....	15
2. 분류기준.....	16
3. 형식분류.....	29
IV . 귀면문암막새의 변천과정.....	46
V . 맺음말.....	51
참고문헌.....	53
Abstract.....	59

〈표 목차〉

표 1. 경주지역 출토 귀면문암막새의 현황	9
표 2. 귀면문암막새의 악면문양	20
표 3. 각 접합기법의 암키와부 특징	22
표 4. 귀면문암막새 분류기준 검토	27
도표 1. 드림부 너비와 높이의 상관관계	24
도표 2. 드림부 너비와 악면두께의 상관관계	24

〈삽도 목차〉

삽도 1. 귀면문암막새의 각부 세부명칭	15
삽도 2. 귀면문암막새 문양면의 각 단위 문양별 세부 명칭	18
삽도 3. 귀면암막새의 접합기법 모식도	22
삽도 4. 귀면문암막새 I 형식-①	29
삽도 5. 귀면문암막새 I 형식-②	29
삽도 6. 귀면문암막새 I 형식-②와 동범화로 판단되는 박공막새	30
삽도 7. 귀면문암막새 I 형식-③	30
삽도 8. 귀면문암막새 I 형식-③의 암키와부 타날문양	30
삽도 9. 귀면문암막새 I 형식의 귀면 형태(왼쪽부터 귀면문암막새 I 형식-① ② ③)	31
삽도 10. 귀면문암막새 I 형식의 좌우장식 문양 중간 아랫부분 문양(왼쪽부터 귀면문 암막새 I 형식-① ② ③).	31
삽도 11. 귀면문암막새 I 형식의 악면문양 (왼쪽부터 귀면문암막새 I 형식-① ② ③) 34	
삽도 12. 귀면문암막새 I 형식 암키와부 흠집 형태	35
삽도 13. 귀면문암막새 II 형식	36
삽도 14. 귀면문암막새 II 형식 암키와부 타날문양	37
삽도 15. 귀면문암막새 II 형식 암키와부 흠집 형태(좌 : 드림부 배면에 흠집이 찍힌 흔적, 암키와부의 흠집 흔적)	38
삽도 16. 귀면문암막새 III형식-①	40
삽도 17. 귀면문암막새 III형식-②	40
삽도 18. 귀면문암막새 III형식-③	40
삽도 19. 귀면문암막새 III형식-④	41
삽도 20. 귀면문암막새 III형식의 귀면 형태(왼쪽부터 귀면문암막새 III형식-① ② ③ ④)	41
삽도 21. 귀면문암막새 III형식의 부리 형태(왼쪽부터 귀면문암막새 III형식-① ② ③)	

④)	42
삽도 22. 귀면문암막새 Ⅲ형식의 귀면의 발(왼쪽부터 귀면문암막새 Ⅲ형식-① ② ④)	42
삽도 23. 귀면문암막새 Ⅲ형식의 악면문양(왼쪽부터 귀면문암막새 Ⅲ형식-④ ④, 귀면문암막새 Ⅲ형식-① ②)	4
삽도 24. 귀면문암막새 Ⅲ형식-④의 암키와부의 요면 특징(왼쪽부터 윤철흔과 단부조정흔적)	43
삽도 25. 귀면문암막새 Ⅲ형식 암키와부 흠집 형태(왼쪽부터 귀면문암막새 Ⅲ형식-① ④)	43
삽도 26. 귀면문암막새 Ⅳ형식의 좌우 장식문양인 당초문	44
삽도 27. 귀면문암막새 Ⅳ형식의 귀면문	44
삽도 28. 귀면문암막새 Ⅳ형식 암키와부 타날문양	44

<도면 목차>

도면 1. 불국사 경내 출토 매납유물(1 : 한국식 해무리굽완, 2 3: 태선조문의 장판타날 암키와)	33
도면 3. 불국사 경내 출토 시설기와(1~4)	39
도면 3. 불국사 경내 출토 매납토기	43
도면 4. 불국사 경내 출토 집선문 암키와	45

I. 머리말

1. 연구의 범위와 목적

일반적으로 기와는 건축부재의 하나로 옛 건물의 형체(形體)를 파악할 수 있는 고고유물이다. 또한 생산지를 제외하면 궁전(宮殿)·사지(寺址)·관아(官衙)·성곽(城郭) 등의 특정 장소에서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고고학에 있어 정치사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비중 있는 유물이다. 즉, 특정계급만이 향유할 수 있었던 기와는 정치적·종교적 권위와 거주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의미 있는 유물이라 하겠다.¹⁾

건축부재로 사용되었던 기와는 그 사용목적상 자기나 토기와 달리 단독으로 기능할 수 없다. 현재도 전통가옥의 기와지붕을 이기 위해서는 약 10평에 400장 정도의 많은 양의 기와가 필요하다.²⁾ 과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되며 그것은 건물지 유적에서 출토되는 다른 어떤 유물보다도 기와의 출토량이 월등히 많다는 점에 근거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출토량에 비해 연구성과는 자기나 토기의 연구성과보다 미진(未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마도 기와의 방대한 출토량을 감당할 수 있는 정리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와에 관심을 기울이는 연구자의 수도 적으며, 실제 발굴을 담당하는 조사자들의 관심도에 따라 소외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최근 들어 기와를 중심으로 한 연구성과가 늘어나고 있어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는 듯하다.³⁾ 그러나 그 대부분은 삼국과 통일신라시대 기와의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고려시대 기와(이하 ‘고려기와’라 칭한다.)의 연구는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다.⁴⁾

고려기와의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주지역에서 출토되는 고

1) 上原眞人, 「平安貴族瓦葺邸宅に住んでいなかった -平安京右京一條三坊九町出土瓦をめぐって-」, 『歴史學考古學』, 高井悌三郎先生喜壽記念論集, 1988.

2) 慶州大學校博物館, 『慶州 佛國寺 境内 聖寶博物館 建立豫定敷地 發掘調査報告書』, 2006, p. 110.

3) (김성구, 「한국 와전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국 기와연구의 회고와 전망』 제1회 한국기와학회 학술대회 발표문집, 2004.)에서는 우리나라 와전연구사를 초창기(1880~1940년대), 형성기(1950~1970년대), 발전기(1980~1990년대)의 3기로 나누어 그동안의 연구업적을 소개하고 있다.

4) (최태선, 「고려시대 기와연구의 성과와 과제 -평기와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 기와연구의 회고와 전망』 제1회 한국기와학회 학술대회 발표문집, 2004.)에서는 고려기와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평기와의 제작 속성을 중심으로 한 고려기와의 연구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려기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것은 신라기와에서 고려기와로 바뀌는 현상을 유물을 통해 가장 잘 검토할 수 있는 곳이 경주지역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즉, 경주가 신라의 천년 고도(古都)였으며 신라가 멸망할 당시 경주가 파괴되었다고 알려지지 않는 것으로⁵⁾ 기와제작에 있어서 신라의 문양 및 기법과 관련된 전통이 길게 존속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경주는 신라시대에 이어 고려시대가 되어도 정치적·종교적으로 중요시되었기 때문에⁶⁾ 계속해서 유지되었던 건물의 존재가 상정된다. 그 건물들의 개·보수를 생각한다면 다량의 고려기와가 경주지역에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연구대상의 공간적 범위를 경주지역으로 한정하였다.

경주지역에서 ‘고려시대’는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고려에 투항(投降)한 935년 이후부터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경주지역 내에서 고려기와를 선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⁷⁾ 그것은 신라기와의 보고 예보다 고려기와의 보고 예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확실한 고려기와라 말할 수 있는 귀목문막새기와의와 어골문의 장판기와를 제외한다면 그 이전의 고려전기기와⁸⁾는 선별이 매우 어렵다.⁹⁾ 신라기와의 영향이 짙게 남아 있는¹⁰⁾ 고려전기

5) 기존의 연구성과에서 신라시대에 이어 고려시대에도 계속해서 경주지역이 중요시되었다는 것은 이미 언급된 바 있으며(上原眞人, 「十一 十二世紀瓦當文樣源流(上) (下)」, 『古代文化』第32卷-第56卷, 1980.; 吉井秀夫 外, 「韓國慶州地域寺院所用瓦の研究 - 岬山寺所用瓦の考察」, 『靑丘學術論集』第4集, 1994.) 아래의 문헌기록을 통해 고려시대 경주가 서경 남경과 함께 삼경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 경주는 경순왕의 투항으로 경주라는 지방행정구역으로 개칭되고 경순왕의 식읍이 되었다(『三國史記』卷二, 『高麗史』卷二).
- 고려 태조 23년(940년)에는 대도독부로 승격되고 동남해군부서의 본영이 설치되었다(『高麗史節要』卷一).
- 성종 6년에는 고려삼경 중 하나인 동경이 되었다(『高麗史節要』卷一).
- 현종 3년에는 다시 경주로 강등되었다가 현종 5년 안동대도호부가 되었다. 현종 21년에는 다시 동경이 되었다(『高麗史』卷五七).

6) 上原眞人, 앞의 논문, 1980, pp. 340~342.

7) 경주지역에서 고려기와의 선별이 어렵다는 것을 언급한 논고는 아래와 같다.

上原眞人, 앞의 논문, 1980.

朴洪國, 「三國末統一初期 新羅瓦塼에 대한 一考察」, 東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86.

吉井秀夫 外, 앞의 논문, 1994.

高正龍, 「軒瓦に現れた文字 - 朝鮮時代銘文瓦の系譜」, 『古代文化』第56卷-第111卷, 2004.

조성윤, 「慶州 皇龍寺址 出土 統一新羅時代 瓦의 研究 課題」, 『기와를 통해 본 ‘미륵사와 황룡사’』, 제2회 한국기와학회 학술대회 발표문집, 2005.

龜田修一, 「百濟滅亡後の夫餘地域の瓦 - 百濟寺院のその後 -」, 『日韓古代瓦研究』, 2006.

8) 일반적으로 고려전기는 무신 난(1170년) 또는 고려 제 15대 숙종(1095~1105)을 기점으로 구분하며, 귀목문의 등장을 고려전기 기와의 기점으로 보는 지금까지의 고려기와 연구성과를(朴銀卿, 「高麗 瓦

기와는 경주지역이 신라의 천년 고도였다는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해 신라기와로 편년되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와에 대한 조사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고려전기 기와를 선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주지역 내에서 고려기와로 판단되는 자료의 증가와 고려시대로 판단되는 유적에서 출토된 기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¹¹⁾.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심시기가 고려시대로 판단되는 불국사 정보박물관건립예정부지 출토의 귀면문암막새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하며 본 연구는 경주지역 내에서 신라기와로 편년되고 있는 고려기와의 선별을 시도하여 기존의 편년설정에 혼란을 줄이고자 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동기와 방법

경주대학교박물관이 2004년 2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불국사 경내 정보박물관건립예정부지(이하 ‘불국사 경내’라 칭함)를 대상으로 실시한 발굴조사에 참여하면서 기와류 및 자기류, 토기류의 출토 상황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었다¹²⁾ 불국사 경내 유적은 자기류의 출토 상황을 근거로 할 때 중심시기가 고려시대로 판단되며¹³⁾ 고려자기와 더불어 고려기와·고려토기 등의 고려시대 유물이 다량 확인되었다.¹⁴⁾ 소량의 중판기와와 인화문토기 등의 통일신라 유물이 출

當文様の 編年 研究」, 『考古歴史學志』第四輯, 東亞大學校博物館, 1988. ; 정성권, 「혜음원지 출토 막새기와에 대한 고찰」, 『문화사학』제19호, 2003. ; 최문환, 「과주 혜음원지 출토 막새기와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高正龍, 앞의 논문, 2004, p. 36. 각주 29번.) 참고하다면 **경주지역에서 고려전기에 해당하는 기와는 935년 이후부터 12세기 초까지의 기와**라 하겠다.

9) 高正龍, 앞의 논문, 2004, p. 28.

10) 文明大, 「우리나라의 기와」, 『佛教美術』, 동국대학교박물관, 1988, p. 193.
김성구, 『옛기와』, 대원사, 2000, p. 78.

11) 吉井秀夫 外, 앞의 논문, 1994. p. 56.

12) 慶州大學校博物館, 앞의 책, 2006.

13) 보고서의 III장에서 V장까지의 내용을 참고 할 때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되어진 자기는 고려시대 전 시기에 걸쳐 확인되는 고려청자가 전체 자기 출토량의 약 65%이상을 차지한다. 이들은 유적에서 고려시대 기와류와 토기류와 함께 뒤섞여 출토되었고 이는 유적의 층위에 대한 보고내용에서 참고할 수 있다. (慶州大學校博物館, 앞의 책, 2006).

14) 이는 보고서 내용 중 ‘V. 출토유물’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유적 내에서 다량 확인된 매납토기들의 내부에 들어있던 목탄 시료를 수거하여 C-14연대를 측정한 결과 A.D. 890~1040, A.D. 900~1190, A.D. 970~1160, A.D. 970~1160의 결과가 나왔는데 ‘VI. 고찰’ 부분에서는 ‘매납토기와 건물의 선후 관계를 생각하면 토기가 매납되었던 건물의 시기를 고려시대로 보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토되었지만¹⁵⁾ 발굴조사 당시 고려시대 이전 유구로 편년되는 하층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들 대부분이 상부의 부식토층에서 고려시대 유물과 뒤섞여 출토되었기 때문에 유적의 중심시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통일신라시대 유물보다 훨씬 많은 양의 고려시대 유물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건물들의 중심시기를 고려시대로 보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된다.¹⁶⁾ 특히, 기와류 중 ‘仇於駟’명 명문기와¹⁷⁾는 옛 길 1·2¹⁸⁾의 길 유구와 함께 유적 내의 건물지와 출토유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본 유적의 보고서 작업에서 발굴현장에서부터 주의를 기울이며 수습한 총 413점의 막새기와¹⁹⁾를 정리 및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들 막새기와의 드림부 문양과 접합기법을 세밀하게 관찰 하면서 수막새와 암막새의 악면 문양형태가 유사하여 세트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예가 확인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수막새는 모두 연화문이며 암막새는 드림부 중앙에 귀면을 중심으로 당초문 또는 운기문이 좌우대칭으로 배치된 것(이하 ‘귀면문암막새’라 칭함.)이다.²⁰⁾ 동형의 암막새는 경주지역 내에서 통일신라 암막새로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유적의 중심시기와 일치하지 않았다. 더욱이 본 유적 출토 귀면문암막새의 암키와부는 장판기와로 지금까지 경주지역 내의 평기와 연구성과²¹⁾를

생각된다.’라 언급하고 있다(慶州大學校博物館, 앞의 책, 2006.).

15) 신라 토기는 전체 토기 출토량의 약 3%이며(慶州大學校博物館, 앞의 책, 2006, p. 287.) 신라 기와인 중판기와는 전체 기와 출토량의 0.07%로(慶州大學校博物館, 앞의 책, 2006, p. 111.) 매우 적은 수량이 확인되었다.

16) 慶州大學校博物館, 앞의 책, 2006, p. 345.

17) 불국사 경내에서는 총 10종 214점의 명문기와가 출토되었다. 그 중 ‘仇於駟’명 고려시대 명문기와는 184점으로 전체 명문기와의 86%에 달한다. 이 ‘仇於駟’명 기와는 명문을 중심으로 위와 아래에 뇌문(雷紋)이 장식되어 있다. 이와 유사한 예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산성의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長池駟’명 기와가 있다(차용길 노병식 박중균 한병길, 『상당산성-서당대 및 남문 외 유적지 조사보고-』, 학연문화사, 1997.). 이들 명문기와의 ‘駟’은 ‘역말 일’로서 역참에 비치한 역마를 의미하는 것으로 역(驛)을 뜻한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도를 보면 많은 역명 끝에 일(驛)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를 통상 ‘역’으로 발음한다(慶州大學校博物館, 앞의 책, 2006, p. 346).

18) 慶州大學校博物館, 앞의 책, 2006, pp. 82~84.

19)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 막새기와는 총 413점으로 완형은 없고 대부분 드림부편이다. 드림부 형태에 따라 수막새, 암막새, 박공막새, 모서리기와, 소형막새, 이형막새로 구분된다. 이 중 수막새와 암막새는 드림부 문양이 확인되는 수막새 드림부편 176점과 암막새 드림부편 147점을 대상으로 문양형태에 따라 구분한 결과 수막새는 총 7종 190점, 암막새는 총 6종 203점이 확인되었다. 보고서에서는 413점의 막새기와 모두 속성표를 이용하여 보고하였으며, 문양의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고 접합기법의 관찰이 용이한 것을 기준으로 선별된 총 58점의 막새기와의 도면과 도판을 제시하였다.

20) 용어 사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II장 귀면문암막새의 개요’에서 언급하겠다.

참고 한다면 통일신라보다는 고려시대의 암막새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불국사 경내 출토 총 203점의 암막새²²⁾ 가운데 문양을 확인할 수 있는 147점의 드림부편을 대상으로 문양형태에 따라 6종으로 구분한 결과 124점이 확인되는 귀면문암막새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그 시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124점의 귀면문암막새는 모두 동일한 형태의 문양이 아닌 것으로 보고서에서는 귀면과 좌우장식 문양의 생김새의 차이에 따라 9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²³⁾ 본인이 직접 귀면문암막새를 관찰하면서 이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며 변천하는 듯 보였고 본 논문에서는 귀면문암막새의 시기와 함께 변천과정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제 II장에서는 귀면문암막새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하겠다.

불국사 경내 출토 귀면문암막새의 문양구성과 동일한 암막새 문양을 어떠한 용어로 부르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귀면문암막새’라는 용어의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겠다. 그리고 귀면문암막새의 출토현황과 미진한 연구성과를 통해 경주지역 출토 예의 대부분이 출토된 불국사 경내 출토 귀면문암막새의 대표성을 언급하겠다.

제 III장에서는 124점의 귀면문암막새를 직접 관찰하여 파악한 분류기준을 정리하고, 분류기준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불국사 경내 출토 귀면문암막새를 4형식으로 분류하겠다.

제 IV장에서는 III장에서 행한 형식분류를 기초로 하고 드림부 문양, 접합기법, 암키와부의 철면·요면 특징 등이 변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불국사 경내 출토 귀면문암막새를 3단계로 설정하여 살펴보겠다. 드림부 문양의 형식학적인 변화와 암키와부의 철면 타날문양 그리고 요면의 특징, 접합기법을 근거

21) 아래 연구성과에 따르면 중판타날의 기와는 통일신라, 장판타날의 기와는 고려시대로 판단 할 수 있다.

金昌鎬, 「後三國時代の 기와에 나타난 麗 濟의 地名」, 『韓國中世史의 諸問題』, 2001.

조성운, 「慶州 出土 中板 打捺文樣 평기와의 製作時期와 그 意味」, 『佛敎考古學』 2, 2002.

——, 「新羅 長板 打捺紋樣 평기와의 慶州 製作與否에 대하여」, 『梨花史學研究』 第30輯, 2003.

22) 불국사 경내 출토 암막새는 총 203점으로 문양이 확인되는 드림부편 147점, 문양을 확인할 수 없는 드림부편 16점, 암키와부 파편 40점이 확인된다. 이 중 **문양이 확인되는 드림부편 147점을 대상으로** 문양형태에 따라 구분한 결과 **귀면문암막새 124점**, 당초문 15점, 기린문 1점, 서조문 4점, 귀목문 2점, 연화문 1점이 확인되었다.

23) 124점의 귀면문암막새를 귀면과 좌우장식문양의 생김새 차이에 따라 귀면당초문(鬼面唐草紋) I~IX까지 구분하였다.

로 I 단계→II 단계→III 단계의 변화를 제시해 두겠다. 이들은 암키와부가 모두 장판기와라는 점, 안정된 층에서 매납된 상태로 출토한 한국식 해무리굽완의 주위에 둘러져 있던 태선조문의 암키와와 안정된 층에서 매납된 상태로 출토한 동이의 뚜껑으로 사용된 세선조문의 장판기와와 동일한 기와가 귀면문암막새의 암키와부로 사용된 점, 암키와부의 요면의 윤철흔 유무(有無) 등을 통해 고려전기 암막새로 판단하고자 한다.

마지막 V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귀면문암막새의 형식분류와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본 논문의 부족한 점을 언급하도록 하겠다.

II. 귀면문암막새의 개요

1. 정의

본 논문에서 다루는 불국사 경내 출토 귀면문암막새는 보고서에서 좌우 장식 문양을 모두 당초문으로 판단하여²⁴⁾ ‘귀면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의 당초문이 장식된 것’이라 정의하고 ‘귀면당초문암막새’²⁵⁾라 명명하였다. 그러나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문양을 재차 관찰한 결과 당초문²⁶⁾이라 정의 내리기에는 어려운 경우들이 있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당초문은 줄기에서 뻗어 나오는 가지의 끝이 활짝 핀 잎의 모양이지만 그와 달리 주위에 화염문 같은 너울지는 표현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둘째, 당초문은 넝쿨상으로 연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특징인데 연속하지 않고 2개의 덩어리로 분리된 것이 서로 교차되는 경우가 있다.

셋째, 두 번째에서 설명한 문양에서 새의 발과 유사한 형태의 귀면의 발이 확인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중 첫째 경우와 같은 특징은 고구려풍의 괴운문²⁷⁾ 또는 충남 부여 외리에서 출토한 와운문전(渦雲文塼)의 와운문²⁸⁾과 유사한 형태로 비운(飛雲)²⁹⁾·화염문(火焰文)³⁰⁾·와문(渦紋)³¹⁾·운문(雲文)³²⁾·운기문(雲氣紋)³³⁾ 등과 같이 불

24) (金東賢 외, 앞의 책, 1976, p. 252.)에서는 불국사 경내 출토 귀면문암막새와 동형의 암막새인 불국사 대웅전 동편회랑 출토 귀면문암막새를 ‘당초문계열의 鬼面’의 예로 소개하고 ‘당초문에 귀면을 배합시킨 유형의 암막새로 중심에 귀면을 배치하고 그 좌우로 넝쿨이 뻗어나가게 의장하였다.’라 정의 하였다.

25) 慶州大學校博物館, 앞의 책, 2006, pp. 171~186.

26) (國立慶州博物館, 앞의 책, 2000, p. 274.)에서는 당초문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내리고 있다. ‘당초문은 당대풍의 덩굴무늬로 만초와 같은 넝쿨풀이 뻗어 나가는 모습을 의장화시킨 것으로 주엽은 계속 굴절되고 지엽은 파생하여 반전되고 있는 형상이다.’

27) 秦弘燮, 앞의 책 -Ⅲ. 佛國寺境內遺物概要-, 慶州市, 1976, pp. 90 91 105.

28) 有光教一, 「夫餘窺岩面に於ける文様塼出土の遺跡と其の遺物」, 『1936年度 古跡調査報告』, 1937, pp. 65~73.

29) 秦弘燮, 앞의 책, 慶州市, 1976, pp. 90 91 105.

30)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黃龍寺 遺蹟發掘調査報告書Ⅰ』, 1984, p. 132.

31) 林明澤, 앞의 논문, 1982, p. 25.

려지고 있다. 공통적으로 구름 문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역동적인 구름의 형태를 표현한 용어로서 ‘운기문’을 사용한다. 즉, 불국사 경내 출토 ‘귀면당초문암막새’는 좌우 장식문양으로서 당초문뿐만 아니라 운기문도 확인되며 ‘귀면당초문암막새’는 이 모두를 포괄하는 용어로서 적합하지 않다. 본 유적 이외의 유적에서도 당초문 외에 운기문·새 깃털모양의 문양(鳥羽紋)·성스런 기운을 표현한 듯한 문양(혹은 귀면의 수염) 등 다양한 문양이 확인된다. 이 같은 문양구성을 보이는 암막새는 중앙에 귀면을 중심적인 문양으로 인식한 경우 獸面文系軒平瓦³⁴⁾·獸面文 암막새³⁵⁾·鬼面紋 암막새³⁶⁾·귀면문 암막새³⁷⁾라 부르며, 귀면이 좌우장식 문양에 결합되었다고 인식한 경우와 귀면과 좌우 장식문양을 대등하게 인식한 경우 怪雲文瓦當³⁸⁾·怪雲文암막새³⁹⁾·당초문계열의 鬼面⁴⁰⁾·忍冬唐草紋 암막새⁴¹⁾·귀면당초문암막새⁴²⁾라 부른다. 본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귀면문암막새’라 부르고자 한다.

첫째, 드림부 중앙에 위치한 귀면은 소위 귀면문이라 정의 되는 형태에서⁴³⁾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좌우 장식문양처럼 전혀 다른 종류의 문양으로 바뀌지 않는다.

32) 文化財管理局 慶州史蹟管理事務所, 『高仙寺址發掘調査報告書』, 1977, p. 61.

33) 高正龍, 앞의 논문, 2004.

34) 小田富士雄 武末純一, 앞의 글, 1975, p. 36.

35) 文化財管理局 慶州史蹟管理事務所, 앞의 책, 1977, p. 61.

36) 朴 沃, 앞의 논문, 1992, p. 28.

37) 國立慶州博物館, 앞의 책, 2000, p. 327.

38) 秦弘燮, 앞의 책 -Ⅲ. 佛國寺境內遺物概要-, 慶州市, 1976, pp. 90 91 105.

39) 國立中央博物館, 『井內功寄贈瓦甄圖錄』, 1990. p. 212.

40) 金東賢 외, 앞의 책, 1976, p. 252.

41) 圓光大學校 馬韓 百濟文化研究所, 『益山帝釋寺址試掘調査報告書』, 1994.

42) 慶州大學校博物館, 앞의 책, 2006, pp. 171~186.

43) 귀면문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귀면의 미간표현은 작품에 따라 그 모습이 약간씩 다르다. 뿔이 솟고 큰 코고 부릅뜬 눈 사이에 자리 잡게 마련인데 뿔을 소처럼 또는 사슴처럼 한 것도 갈기 모양으로 부드럽게 다룬 것도 있다. 눈에는 눈동자를 박아 더 강조한 것, 둥글게만 만든 것, 찢무덤처럼 된 것, 윤곽에 선을 둘러 돋보이게 한 것 등 여러 가지 방식을 썼고, 코는 주먹코, 큰 코 구멍이 앞을 바라다보게 된 들창코이다.’라 설명되고 있다(金東賢 외, 앞의 책, 1976, p. 258.). ‘귀면(鬼面)’이라는 용어대신 ‘용면(龍面)’이라 부르자는 의견도 있지만(姜友邦, 「韓國瓦當藝術論序說」, 『新羅瓦磚』, 國立慶州博物館, 2000, pp. 424~428.) 본 논문에서는 도록이나 논고, 보고서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귀면(鬼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며 ‘귀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국립경주박물관의 『新羅瓦磚』 p.323에 귀면와 설명을 참고하였다.

둘째, 다양한 종류의 좌우 장식문양은 모두 귀면의 좌우에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문양 구성이 동일하다.




셋째, 귀면과 좌우 장식문양은 어느 하나를 중심문양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각 단위문양이 서로 조합을 이루어 만들어진 하나의 문양 형태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인식해야만 문양의 변화를 바르게 짐작할 수 있다.⁴⁴⁾

정리하자면, 다른 문양으로 바뀌지 않는 드림부 중앙의 귀면을 중심으로 그 좌우에 당초문, 운기문, 조우문, 성스런 기운을 표현한 문양(혹은 귀면의 수염) 등과 같은 다양한 문양이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동일한 문양구성을 보이고 이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서 ‘귀면문암막새’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귀면을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문양이 좌우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라 정의 할 수 있겠다.

2. 출토현황과 연구성과

귀면문암막새는 기존에 도록과 단행본·논고를 통해 다수의 예가 보고 되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발굴조사에 따른 귀면문암막새의 출토 예가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의 경주지역에서 출토 귀면문암막새의 현황을 아래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경주지역 출토 귀면문암막새의 현황

번호	귀면문암막새 출토 예	문 양 구 성	출 토 지	전 거
1		형상곳은 귀면 + 귀면의 입에서 시작하여 외향 하는 당초상의 운기문	경주 석굴암	『新羅瓦塼』 : 도 1074
2		위의 1번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귀면과 운기문	경주 불국사 대웅전 동편 회랑 경주 석굴암	『新羅古瓦の研究』 : 도면 59-691
3		형상곳은 귀면 + 깃털 문양	경주 인왕리 폐사지	『新羅古瓦の研究』 : 도면 59-689

44) 上原眞人, 앞의 논문, 1980, pp. 343~344.

4		익살스러운 2개의 귀면 + 내향하는 당초문	경주 부근 경주 천룡사지	『天龍寺址 發掘調査報告書』 : 삽도 2 A-2
5		익살스러운 귀면 + 귀면의 입에서 시작하여 외향하는 당초문	경주 고선사지 경주 황룡사지 경주 인용사지	『高仙寺址 發掘調査報告書』
6		입의 표현이 극도로 생략된 귀면 + 2개의 덩어리가 서로 교차하는 운기문(귀면의 발이 확인됨.)	경주 황룡사지 경주 불국사 대웅전 동편 경주 석굴암	『新羅古瓦の研究』 : 도면 59-690
7		위의 6번의 귀면 형태와 유사한 귀면 + 2개의 덩어리가 2겹으로 겹쳐져 있는 운기문	경주 황룡사지 경주 불국사 극락전 북편회랑 경주 신라왕경(구황동)	『新羅古瓦の研究』 : 도면 59-688
8		코와 입이 합쳐져 새의 부리와 유사한 형태의 귀면 + 2개의 덩어리가 서로 교차하는 운기문(귀면의 발이 확인됨.)	경주 불국사 대웅전 동편 경주 인왕리페사지	『新羅瓦塼』 : 도 1071
9		위의 9번의 문양면 내의 귀면과 운기문, 악면의 문양 형태가 유사함.	경주 불국사 대웅전 동편 경주 고선사지	『新羅瓦塼』 : 도 1072
10		위의 8, 9과 문양면 내의 귀면과 운기문 형태가 유사함. 하지만 문양의 표현이 매우 단순함.	경주 불국사 대웅전 동편 경주 석굴암 경주 보문사지	『新羅古瓦の研究』 : 도면 59-694
11		매우 생략적인 귀면 + 내향하는 당초문 악면은 4부분의 요철로 이루어진 도구를 사용해 새긴 파상문	경주 천군리페사지 경주 황룡사지	『新羅古瓦の研究』 : 도면 59-696
12		귀면의 날카로운 이빨이 확인되지만 작은 파편인 관계로 전체적인 문양 형태를 알 수 없음.	경주 황룡사지	『新羅古瓦の研究』 : 도면 59-695
13		극도로 생략된 추상적인 귀면 + 외향하는 당초문	경주 월성지 경주 창림사지	『新羅古瓦の研究』 : 도면 59-697
14		위의 13번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귀면과 당초문	경주부근	『新羅古瓦の研究』 : 도면59-698

이상, 경주지역에서의 출토한 예들은 주로 토함산 일대의 불국사, 석굴암, 고선사지, 보문사지, 천군리페사지에서의 보고 예가 많으며 신라시대에 이어 고

려시대에도 대표적인 사찰이었던 황룡사지에서도 다양한 예가 보고되었다. 특히, 경주 출토 귀면문암막새는 다른 지역에 비해 동형⁴⁵⁾의 예가 다수 확인되는데 주로 황룡사와 불국사, 석굴암, 고선사지, 천군리폐사지, 인룡사지에서 출토된 귀면문암막새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고려의 것보다 화려하고 세밀한 느낌을 준다는 이유로 통일신라시대로 편년되고 있지만 근거는 매우 추상적이다. 이 중 표 1에 1·2·6·8~10은 고려시대가 중심시기인 불국사 경내 출토의 귀면문암막새와 동형의 예가 확인되며 경주에서 확인되는 대다수의 귀면문암막새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다루지는 불국사 경내 출토 귀면문암막새는 경주출토 귀면문암막새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경주출토 귀면문암막새의 대략적인 시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귀면문암막새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미진한 상황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경주출토 막새기와를 정리하여 소개하는 과정에서 귀면문암막새를 신라의 막새기와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⁴⁶⁾

둘째, 각 기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막새기와를 정리하여 소개하는 과정에서 귀면문암막새를 신라의 막새기와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⁴⁷⁾

45) 여기서 ‘동형(同型)’이라는 것은 동일한 문양 형태의 귀면문암막새를 말하는 것으로 ‘동일계 동범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계 동범와’는 문양만 같다고 판단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림부 문양면에서 확인되는 범상(范傷)의 흔적과 규격 그리고 접합기법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판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유물을 직접관찰 할 수 없는 예들에 대해 ‘동일계 동범와’를 판단 할 수 없기 때문에 ‘동형’으로 파악하였다.

46) 경주에서 출토된 막새기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는 연구성과로서 신라의 고도였던 경주에서 출토되었다는 이유만 귀면문암막새를 통일신라로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浜田耕作 梅原末治, 위의 책, 1934.

金東賢 외, 앞의 책, 1976.

國立慶州博物館, 앞의 책, 2000.

47) 관이 소장한 자료를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서 각 시대에 걸친 유물이 소개되어있다. 대부분의 귀면문암막새는 통일신라로 소개되고 있다. 일부 고려시대로 소개하고 있는 귀면문암막새가 확인되는데 이는 대부분 고려의 옛 수도인 개경과 삼경 중 하나인 평양에서 수습된 것이며 접합된 기와의 타날문양이 어골문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판단한 것이다.

國立中央博物館, 『井內功寄贈瓦甎圖錄』, 1990.

國立慶州博物館, 앞의 책, 2000.

_____, 『유창종 기증 기와 전돌』, 2002.

단국대학교중앙박물관, 『기와 전』, 1998.

森山信三, 「高麗瓦譜(下)」, 『月刊 韓國文化』, 韓國文化院, 1987.

원광대학교박물관, 『박물관도록』, 1996.

영남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2005.

셋째,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귀면문암막새를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유적의 초창시기와 관련하여 통일신라 말의 막새기와로 편년되고 있다⁴⁸⁾.

넷째, ‘귀면’이라는 문양에 집중하여 그 장식적인 기능과 이를 사용한 사람들의 미의식을 이해하고 시대에 따른 문양의 변천과정과 특징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문양사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⁴⁹⁾.

다섯째, 악면에 문양이 확인되는 것을 통일신라 막새기와의 특징이라 판단하고⁵⁰⁾, 유물에서 관찰되는 흔적들을 통해 와범의 복원과 제작과정의 복원을 시도한 연구성과이다. 예로 제시하고 있는 것 중 불국사 대웅전 동편에서 출토한 귀면문암막새를 소개하고 제작기법 보다는 악면문양을 검토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⁵¹⁾

48) 발굴조사를 통해 보고되어진 귀면문암막새의 예는 아래와 같다. 이들 귀면문암막새는 경주지역에서는 모두 통일신라로 보고되고 있으며 경주이외의 지역에서 출토된 귀면문암막새는 유적의 초창시기와 관련하여 통일신라 말로 보고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문헌기록과 함께 유적에서 출토된 중판기와와 줄무늬토기 해무리굽 청자완을 근거로 한 것이다.

慶州市,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1976.

國立公州博物館 公州大學校博物館, 『南穴寺址』, 1993.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天龍寺址 發掘調查報告書』, 1998.

_____, 『新羅王京 發掘調查報告書 I』, 2002.

國立博物館(尹武炳), 『金剛寺-夫餘郡 恩山面 琴公里 百濟寺址 發掘調查-』, 1969.

國立夫餘文化財研究所, 『彌勒寺 遺跡發掘調查報告書 II』, 1996.

_____, 『實相寺 發掘中間報告』, 1999.

_____, 『王興寺 發掘中間報告 I』, 2002.

文化財管理局 慶州史蹟管理事務所, 『高仙寺址發掘調查報告書』, 1977.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黃龍寺 遺蹟發掘調查報告書 I』, 1984.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河南 天王寺址 試掘調查 報告書』, 2001.

_____, 『河南 天王寺址 2次 試掘調查 報告書』, 2002.

圓光大學校 馬韓 百濟文化研究所, 『益山帝釋寺址試掘調查報告書』, 1994.

尹武炳, 『定林寺址發掘調查報告書』, 圖書出版 民族文化, 1986.

忠清大學博物館, 『忠州 金生寺址 發掘調查 報告書』, 2006.

49) 아래의 논고들은 신라시대에 가장 성행하였고, 시대적으로 그 문양의 변화가 뚜렷하며, 기와의 형태에 따른 표현기법도 특이하다는 이유에서 선택된 귀면와를 중심으로 귀면문의 의미와 시대적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귀면문암막새는 귀면와 이외에 귀면이 확인되는 다른 종류의 기와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

林明澤, 「統一新羅 鬼面瓦에 관한 研究 -내림새막새기와를 中心으로-」, 檀國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82.

宋香珍, 「新羅 鬼面文樣에 대한 研究」, 『慶州史學』 第2輯, 東國大學校 慶州大學 國史學會, 1983.

金永喆, 「韓國의 鬼面紋樣 研究-기와에 나타난 귀면문양을 中心으로-」, 全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91.

박 옥, 「신라의 귀면문와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50) 小田富士雄 武末純一, 앞의 글, 1975, p. 31.

이상의 연구성과에서 알 수 있듯이 귀면문암막새는 뚜렷한 근거나 분석 없이 매우 추상적으로 문양사적인 관점에 의해 통일신라시대에 성행한 문양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큰 듯하다.⁵²⁾ 특히, 경주출토 기와들은 대부분 재고의 여지없이 신라기와로 편년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선학들에 의해 이미 지적되었다.⁵³⁾ 그나마 평기와는 간헐적이지만 연구가 진행되어 일부의 신라기와와 고려기와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다.⁵⁴⁾ 이에 비해 막새기와는 연구성과의 진척이 거의 없어 구별이 쉽지 않다.⁵⁵⁾ 그 중 하나가 바로 귀면문암막새이다.

51) 高正龍은 악면에 문양이 확인되는 것은 통일신라 막새기와의 특징으로 7세기 후엽에서 8세기대의 막새기와일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악면에 문양이 확인되는 막새기와의 제작기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 중 하나로 불국사 대웅전 동편에서 출토된 귀면문암막새 3점을 제시하고 제작기법이 아닌 악면문양의 형식학적인 변화를 근거로 하여 악면문양의 변천을 살피고 이들이 불국사 창건기와라고 언급하고 있다.

高正龍, 「新羅古瓦についての覺書」 『京都市埋藏文化財研究所 研究紀要』第6號, 京都市埋藏文化財研究所, 2000.

———, 「新羅頸部施文瓦の製作技法 -統一新羅瓦の編年にむけて-」, 立命館大學學術研究, 2004.

52) 귀면문을 통일신라에 성행한 문양으로 보고 있는 연구성과는 아래와 같다.

浜田耕作 梅原末治, 『新羅古瓦の研究』, 京都帝國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報告書 第13冊, 1934.

北九州市立歴史博物館, 『新羅の古瓦塼』, 1975.

小田富士雄 武末純一, 「解説篇」, 『新羅の古瓦塼』, 北九州市立歴史博物館, 1975, p. 14 31.

金東賢 외, 『新羅의 기와』, 東山文化社, 1976.

國立慶州博物館, 『新羅瓦塼』, 2000, pp. 324~347.

김성구, 「신라 기와의 분류와 그 변천」, 『隱逸의 秀麗한 꿈 新羅 瓦當』, 영남대학교박물관, 2005, p. 140 141.

영남대학교박물관, 『隱逸의 秀麗한 꿈 -新羅瓦當-』, 2005.

53) 각주 7번에서 참조 할 수 있다.

54) 아래 연구성과에 따르면 중판타날의 기와는 통일신라, 장판타날의 기와는 고려시대로 판단 할 수 있다.

金昌鎬, 「後三國時代の 기와에 나타난 麗 濟의 地名」, 『韓國中世史의 諸問題』, 2001.

조성운, 「慶州 出土 中板 打捺文樣 평기와의 製作時期와 그 意味」, 『佛教考古學』2, 2002.

———, 「新羅 長板 打捺紋樣 평기와의 慶州 製作與否에 대하여」, 『梨花史學研究』第30輯, 2003.

55) 경주출토 막새기와 중 암막새에 관한 연구성과는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 문양을 중심으로 한 통일신라시대 수막새의 연구성과이다. 이들 연구성과에서 다루고 있는 통일신라 수막새 중 고려시대로 판단되는 수막새가 일부 확인된다. 따라서 통일신라 막새기와와 고려시대 막새기와의 구별을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이라 하겠다.

김화영, 「통일신라시대의 연화문연구」, 『이대사원』 7, 이대사학회, 1968.

任映信, 「統一新羅時代の 瓦當과 塼에 나타난 相花紋의 研究」, 東亞大學校 敎育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82.

김성구, 「통일신라시대 서조문와당 소고」, 『윤무병박사 회갑기념논총』, 윤무병박사 회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1984.

———, 「新羅瓦當의 變遷과 그 特性」, 기와를 통해 본 고대 동아시아 삼국의 대외 교섭 ‘아름다운

귀면문암막새는 그 예가 많지 않은 것으로 삼국시대에 제작되었다고 판단되는 익산 제석사지 출토 ‘귀면인동당초문암막새’(표 1에 38번 참조)⁵⁶⁾ 이후 명확하게 통일신라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예는 아직까지 경주지역에서 확인 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막새 자체의 드림부 문양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함께 제작기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문양이 화려하다는 이유로 편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본인이 직접관찰 할 수 있었던 총 124점의 불국사 경내 출토 귀면문암막새를 중심으로 드림부 문양과 함께 제작기법의 세밀한 관찰을 통해 그 시기를 제시하고자 한다.

신라기와, 그 천년의 숨결’ 특별전 국제학술심포지움 발표문, 국립경주박물관·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0 조직위원회, 2000.

신창수, 「황룡사지 폐와무지 출토 신라와당」, 『문화재』 18, 문화재관리국, 1985.

윤근일, 「통일신라시대 와당의 제작기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박홍국, 「월성군 내남면 망성리와요지와 출토와전에 대한 고찰」, 『영남고고학』 5, 영남고고학회, 1988.

朴恩辰, 「芬皇寺 출토 수막새 편년研究 -문양과 제작방법을 중심으로-」, 東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4.

沈 弘, 「統一新羅時代 막새기와 鳥文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5.

盧潤相, 「新羅時代 蓮花文수막새 研究 -慶州地域 寺址發掘出土品을 中心으로」, 東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5.

기와고고학회, 『기와를 통해 본 ‘미륵사와 황룡사’』 제2회 한국기와학회 학술대회 발표문집, 2005.

56) 제석사지 출토 ‘귀면인동당초문암막새’의 경우 주연부가 무문이며, 접합된 암키와가 단판의 선조문이다. 또한 공반된 수막새가 현재 연구성과에 따라 7세기대로 편년되고 있다. 더욱이 경주 안압지 출토 무악식암막새인 ‘당초문암막새’의 당초문과 귀면의 좌우를 장식한 인동당초문의 형태가 유사한 점에서 7세기 후반 이전에는 만들어 졌다고 판단된다.

皇壽永, 「百濟帝釋寺址의 研究」, 『百濟研究』 제4집,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1979.

圓光大學校 馬韓 百濟文化研究所, 앞의 책, 1994.

원광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1996.

趙成允, 「古新羅 有段式기와에 대하여」, 『古文化』 第57輯, 2002.

金善基, 「益山 帝釋寺址 百濟 기와에 대하여」, 『전남의 기와 -광양 마로산성출토 기와를 중심으로-』, 제3회 한국기와학회 학술대회 발표문집,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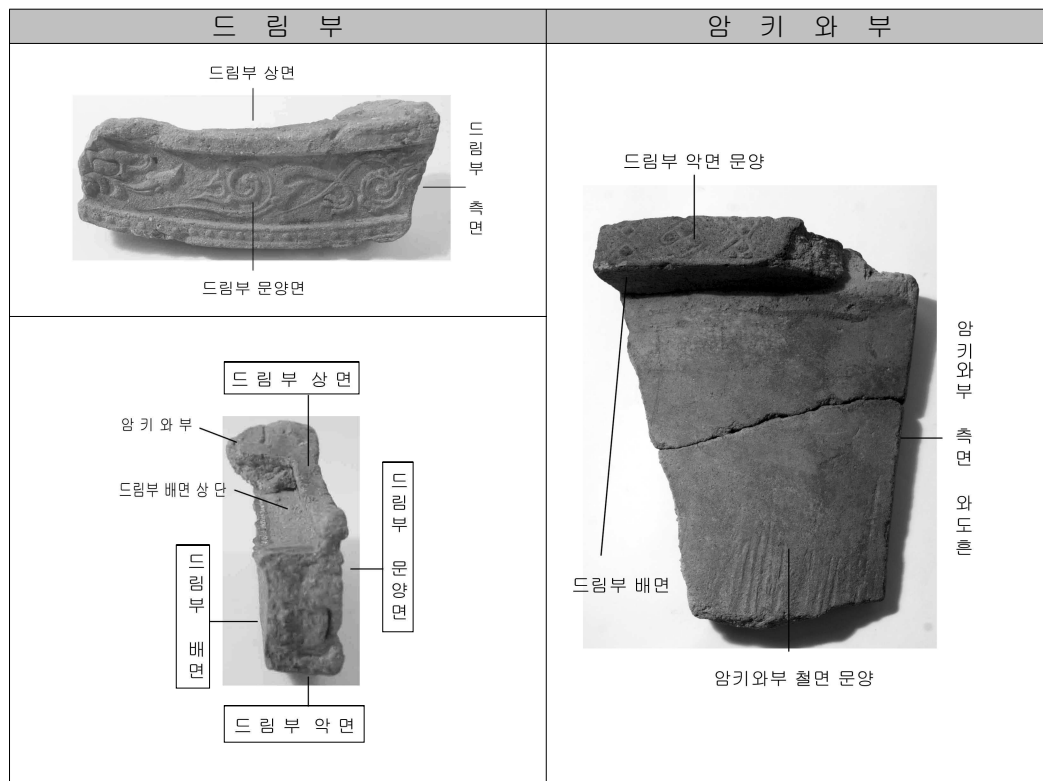
龜田修一, 「第2章 熊津 泗泚時代の瓦」, 『日韓古代瓦研究』, 2006, pp. 110~113.

심상옥, 「백제 암막새의 출현과정에 관한 검토」, 『文化財』 第三十八號, 2006.

Ⅲ. 귀면문암막새의 분류

1. 각부 명칭

불국사 경내 출토 귀면문암막새의 형식분류를 행하기에 앞서 각부 명칭을 삽도 1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는 논지 전개에 편의를 위한 것으로 기존의 막새기와 연구성과를 참고한 것이다. 문양을 살펴보면서 언급되는 것은 드림부 문양면·드림부 약면·암키와부 철면 문양이며, 제작기법을 살펴보면서 언급되는 것은 드림부 상면·드림부 배면·드림부 배면 상단·암키와부 측면·와도흔이다. 일반적으로 막새는 문양면이 확인되는 드림부가 따로 출토되는 경우가 많아 드림부를 주요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막새는 드림부와 암키와부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두 부분을 함께 관찰해야 한다.⁵⁷⁾



삽도 1. 귀면문암막새의 각부 세부명칭

57) 忠南大學校博物館, 『聖住寺』, 1998, p. 125 각주16번.

2. 분류기준

기와에서 분류기준으로 지표가 될 수 있는 속성은 첫 번째, 기와가 완성되고 난 이후의 전체적인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는 색조, 소성도, 태토, 크기 등이다. 두 번째는 기와를 제작할 당시 가해진 도구나 조정에 의한 흔적들로 막새기와에서는 드림부 문양, 암키와부의 철면·요면 특징, 접합기법과 관련 흔적 등이 이에 해당하며 분류기준 지표로서 중요시된다.⁵⁸⁾ 이와 같이 다양한 속성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만 비로소 형식분류가 가능하다.

이 중 드림부 문양과 접합기법은 기존의 막새연구에서 분류기준 속성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⁵⁹⁾ 제작기법보다는 문양을 중심으로 한 양식적 변천에 막새기와의 연구가 집중되어 있는 듯하다. 따라서 연구 경향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편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드림부 문양뿐만 아니라 접합기법과 평기와부의 철면 타날문양 그리고 요면의 특징 등을 유기적으로 살펴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한다.⁶⁰⁾ 하지만 고고현장에서 출토되는 막새기와는 평기와부까지 온전히 남아 있는 예보다는 드림부만 잔존한 경우가 많으며 불국사 경내 출토 막새기와 역시 공감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불국사 경내 출토 124점의 귀면문암막새는 드림부를 중심으로 분류기준 속성을 살펴보고자 하며 암키와부의 철면 타날문양과 요면 특징, 두께 등과 같은 특징들은 형식분류와 단계설정에서 각 형식과 각 단계에서 확인되는 암키와부의 특징을 언급하도록 하겠다. 아래에서는 본인이 직접 관찰하여 파악한 귀면문암막새의 다양한 속성들을 문양을 시작으로 접합기법, 크기(계측치), 색조, 소성도, 태토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표 5. 참조).

58) 清水信行, 「韓國論山郡開泰寺出土の軒平瓦製作技法について」, 『青山史學』第16, 1998.

59) 문양을 중심으로 선행연구 예와 제작기법을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 예
金誠龜, 「雁鴨池 出土 古式 瓦當의 考察」, 『美術資料』第29號, 國立中央博物館, 1981.

——, 「新羅瓦當의 變遷과 그 特性」, 기와를 통해 본 고대 동아시아 삼국의 대외 교섭 ‘아름다운 신라기와, 그 천년의 숨결’ 특별전 국제학술심포지움 발표문, 국립경주박물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0조직위원회, 2000.

金和英, 「三國時代 蓮花紋 研究」, 『歷史學報』34輯, 歷史學會, 1967.

——, 「統一新羅時代 蓮花紋 研究」, 『이대사원』7輯, 梨花女子大學校, 1968.

박용진, 「백제와당의 체계적 분류-수막새기와를 중심으로-」, 『백제문화』7 8합집, 백제문화재연구소, 1975.

尹根一, 앞의 논문, 1977.

60) 李仁淑, 「統一新羅~朝鮮前記 평기와 製作技法의 變遷」, 慶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4.

1) 문양

막새기와의 문양은 드림부에서 확인되는 문양과 평기와부의 철면에서 확인되는 타날문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삽도 1. 참조). 막새기와는 드림부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는 드림부와 평기와부의 문양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고고현장에서 출토되는 막새기와는 평기와부까지 온전히 남아 있는 예가 드물며 드림부만 잔존한 경우가 많다. 불국사 경내 출토 막새기와 역시 공감하는 문제로 124점의 귀면문암막새는 드림부를 중심으로 문양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드림부 문양면

막새의 문양은 외관상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한가지로 시간적·공간적으로 보다 민감한 변화를 보여준다.⁶¹⁾ 문양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양면의 각 단위문양이 조화를 이룬 형태와 의장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악면의 문양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⁶²⁾ 그리고 막새 문양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분류는 단순히 문양의 양식적인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막새를 만든 와범 그 자체를 검토하는 것과 같다. 즉, 이 또한 제작기법을 살펴보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겠다. 총 124점의 귀면문암막새는 귀면과 좌우장식 문양 형태가 모두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서로 유사한 특징을 보이며 상이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드림부 문양면을 살펴보기에 앞서 각 단위문양별 세부 명칭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명칭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참고하였다.⁶³⁾

61) 崔英姬, 「江原地方 高麗時代 평기와에 관한 研究」, 檀國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2003, p. 101.

62) 上原眞人, 앞의 논문, 1980, p. 263.

63) 김창호, 「新羅 기와 연구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 『강좌미술사』, 한국미술사연구소, 2000.
高正龍, 앞의 논문, 2004.
慶州市, 앞의 책, 1976.

귀면의 세부적인 명칭	좌우장식 문양의 명칭
	<p><당초상의 운기문></p> 
	<p><2개의 운기문 덩어리가 교차하는 운기문></p> 
	
	<p><넝쿨상의 당초문></p> 

삽도 2. 귀면문암막새 문양면의 각 단위 문양별 세부 명칭

① 귀면 형태

가. 뿔 모양

- 'C'자형으로 둥글게 흰 큰 뿔('C'자)
- 'ㄷ'형태로 작은 뿔('ㄷ'형태)

나. 눈 주변 모양

- 눈만 확인되는 것(A)
- 눈 위에 눈썹이 확인되는 것(B)
- 눈을 감싼 투구와 같은 장식이 확인되는 것(C)

다. 코와 입의 형태

- 들창코와 턱과 아랫니가 표현되지 않은 입(a)
- 들창코와 'V'자 형태의 극도로 생략된 입(b)
- 코와 입이 하나로 합쳐져 새의 부리와 같은 것(c)
- 주먹코와 좌우로 작게 벌어진 입(d)

라. 수염 모양

- 'C'자형으로 2가닥의 수염이 확인되는 것('C'자형의 2가닥)
- '/'형태로 3가닥의 수염이 확인되는 것('/'형태의 3가닥)

마. 귀 모양

- 귀면의 눈과 수염 사이에서 시작하며 사선으로 뻗은 가늘고 긴 귀
(가늘고 긴 형태)
- 귀면의 좌우 측면을 모두 감싼 각 진 '3'자 형태의 큰 귀로 박쥐
의 날개와 같은 귀(숫자 '3'형태)

바. 발의 유무

- 발이 확인되지 않는 것(무)
- 발이 확인되는 것(유)

② 좌우장식 문양

가. 당초상의 운기문(운기문①)

나. 2개의 덩어리가 교차하는 운기문(운기문②)

다. 넝쿨상의 당초문

(2) 드림부 악면

악면문양은 드림부의 문양면과 동시에 제작된 것으로 와범의 구성 요소인 외형틀(枷型)에 문양을 조각하여 찍어낸 것이다. 의장(意匠)의 성격이 강한 악면문양은 드림부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존재가 아니라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양이 확인되지 않는 무문의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막새기와의 대부분이 악면에서 문양이 확인되지 않는다. 악면문양이 존재하는 막새기와는 와범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외형틀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제작기법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막새기와의 와범을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 할 수 있겠다. 악면이 무문인 경우는 드림부 배면과 악면이 이어진 형태와 점토의 층적상태 등을 충분히 관찰해야 외형틀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다. 불국사 경내 출토 귀면문암막새는 무문·기하학적 능형문·복합문·운기문 이상 크게 5가지의 악면문양이 확인된다(표 2. 참조).

표 2. 귀면문암막새의 악면문양

구분	악 면 문 양	설명 및 명칭
1		횡 방향 물손질로 깔끔하게 정면되었으며 문양이 확인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무문’이라 명명한다.
2		4개의 능형(菱形) 돌기(突起)를 능상(菱狀)의 돌선(突線)로 감싼 문양과 앞의 문양이 반절되어 2개로 분리되고 각각의 정점(頂點)이 상하로 만나는 문양, 이상 2가지의 문양이 교대로 배치된 것이다. ⁶⁴⁾ 본 논문에서는 ‘기하학적 능형문’이라 명명한다. ⁶⁵⁾
3		크기가 3cm 이상인 문양으로 수려한 화문과 팔메트(palmette)문의 복합적 문양이다. ⁶⁶⁾ 본 논문에서는 ‘복합문1’이라 명명한다.
4		크기가 2~3cm 이내인 문양으로 수려한 화문과 팔메트(palmette)문의 복합적 문양이다. 본 논문에서는 ‘복합문2’라 명명한다.
5		크기가 3cm 이상인 당초상의 운기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운기문1’이라 명명한다. ⁶⁷⁾
6		크기가 2~3cm 이내인 당초상의 운기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운기문2’라 명명한다.
7		넙쿨상의 당초문으로 본 논문에서는 ‘당초문’이라 명명한다.

64) 불국사 복원공사보고서 내용을 인용하였다(慶州市, 앞의 책, 1976, pp. 92~95.).

65) (高正龍, 앞의 논문, 2004.) 에서의 표현을 인용하였다.

66) (高正龍, 앞의 논문, 2004.)에서의 표현을 인용하였다.

67) (김창호, 앞의 논문, 2000.) 에서의 표현을 인용하였다.

- ① 무문(무)
- ② 기학학적 능형문(기 능)
- ③ 복합문1(복-1)
- ④ 복합문2(복-2)
- ⑤ 운기문1(운-1)
- ⑥ 운기문2(운-2)
- ⑦ 당초문(당초)


이 중 무문을 제외하면 외형들의 존재를 당연 짐작할 수 있으며, 더욱이 이들 악면문양은 불국사 경내 출토 수막새 중 악면문양이 확인되는 일부 수막새와 유사한 점에서 세트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2) 접합기법

불국사 경내 출토 124점의 귀면문암막새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의 접합기법으로 구분된다(삽도 3. 참조).

(1) 접합기법 I : 드림부 배면 상단에 약간 비스듬하게 대칼을 집어넣고 드림부의 높이에 절반 또는 그보다 약간 더 깊게 드림부 상면이 2겹이 되도록 절개하여 드림부 배면을 형성한 점토를 뒤로 젖힌 뒤 암키와를 접합시킨 기법이다. 뒤로 젖힌 점토를 절면에 덧붙여 보족점토의 효과를 내었다.

(2) 접합기법 II : 드림부 배면 상단을 'L'자 형태로 도려내어 단을 만들고 암키와를 접합시킨 기법이다.⁶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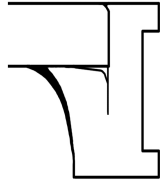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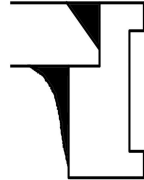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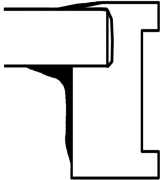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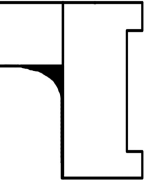
① 암키와부의 단면 형태가 '  '이며 암키와부의 요면과 드림부 상면이 맞닿는 부분에 소량의 보족점토가 덧 발린 것(II-1)

② 암키와부의 단면 형태가 '  '이며 암키와부의 요면과 드림부 상면이 맞닿는 부분에 다량의 보족점토가 덧 발린 것(II-2)

(3) 접합기법 III : 드림부 배면 상단을 'ㄷ'자 형태로 단이진 흙을 만들고 암키와를 접합시킨 기법이다.⁶⁹⁾

68) 윤근일의 분류에 따르면 D형식, E형식에 해당하며(尹根一, 앞의 논문, 檀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8, pp. 36-37) 김필숙의 분류에 따르면 G형식(金必淑, 앞의 논문, 慶州文化財研究所, 1997, pp. 315~316.), 박은진의 분류에 따르면 IV형식에 해당된다(朴恩辰, 앞의 논문, 東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4, pp. 25-26).

(4) **접합기법 IV** : 드림부 배면 상단을 어떠한 도구로도 가공하지 않고 암키와를 접합시킨 기법이다.⁷⁰⁾

구 분	접 합 기 법	II			III	IV
		I	II-1	II-2		
사진						
모식도						

삽도 3. 귀면암막새의 접합기법 모식도

불국사 경내 출토 귀면문암막새는 장판타날의 암키와를 다양한 접합기법을 사용하여 접합한 것으로 암키와부의 특징 따라 접합기법의 선후를 짐작할 수 있다. 각 접합기법에 따른 암키와부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69) 윤근일의 분류에 따르면 G형식에 해당하며(尹根一, 앞의 논문, 檀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8, p. 37) 김필숙의 분류에 따르면 H기법(金必淑, 앞의 논문, 慶州文化財研究所, 1997, pp. 315~316.)에 해당된다.

70) 清水信行이 분류한 '製作技法 A類'와 유사한 것으로 개태사 출토 막새기와의 접합기법 가운데 가장 이른 단계의 것이다. 제작기법 A류는 드림부와 암키와부의 접합 상태가 불안정하여 이 보다 안정적이 접합기법으로 변천해 간다고 판단하고 있다(清水信行, 앞의 논문, 1988, pp. 63~65.).

표 3. 각 접합기법의 암키와부 특징

접합기법 암키와부 특징	접합기법 I	접합기법 II-1	접합기법 II-2	접합기법 III	접합기법 IV
타날문양	태선조문의 장판타날	세선조문의 장판타날	집선문의 장판타날	-	무문
두께(cm)	1.8~2.7	1.5~2.6	2.5	1.6	1.6~2.5
사절흔의 유무	무	무	유	-	무
윤철흔의 유무	무	무	-	-	유
단부조정의 유무	유	무	유	-	유

(‘-’ 표시는 파손되어 특징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을 표시한 것이다.)

우선, 접합기법 I · II-1는 암키와부의 타날문양은 선조문으로 집선문이 확인되는 접합기법 II-2 보다 빠르다고 판단된다. 또한 접합기법 II-2의 암키와부에서 뚜렷한 사절흔과 함께 단부조정흔적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가장 늦은 접합기법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평가와의 연구성과⁷¹⁾에 의하면 윤철흔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것보다 이른 것으로 접합기법 I · II-1가 접합기법 IV 보다 이른 시기의 접합기법으로 판단된다. 가장 이른 시기로 판단되는 접합기법 I · II-1는 그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근소한 시간차를 두고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접합기법 III은 암키와부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예가 없어 접합기법 내에서 선후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불국사 경내 출토 귀면문암막새의 접합기법은 접합기법 III을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I · II-1→IV→II-2 순으로 변한다고 볼 수 있다.

3) 크기

여기에서의 크기는 드림부에서 계측 가능한 수치를 말하는 것으로 귀면문암막새가 완성되고 난 이후의 상태와 제작기법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다.

드림부는 와범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규격은 와범의 크기에 의해 어느 정도 결정된다. 드림부 문양 또한 와범으로 찍어냈기 때문에 드림부 계측치의 변화는 문양 시문공간의 변화라 말할 수 있고, 이는 문양의 변화와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드림부의 계측치를 통해 와범의 크기와 구조를 짐작할 수 있다.⁷²⁾ 본 논문

71) 李仁淑, 앞의 논문, 慶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4.

72) 다만 드림부의 계측치를 통해 와범의 크기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작당시 드림부가 건조되는 과정과 소성되는 과정에서 수축률을 파악해야한다(左原眞, 「平瓦桶券作り」, 『考古學雜誌』 58-2, 日本考古學會, 1972.).

서는 귀면문암막새의 드림부 너비와 드림부 높이·악면두께를 재어 기록하였다. 이는 아래와 같다. 이 중 유물의 잔존 상태를 참고 했을 때 드림부 너비를 잴 수 있는 드림부편은 없기 때문에 추정되는 계측치를 기록하였다.

- (1) 드림부 추정 너비 : 약 30cm 32cm 34cm
- (2) 드림부 높이 : 약 5cm ± 1~5 약 6cm ± 1~5
- (3) 악면 두께 : 약 2cm ± 1~5 약 3cm ± 1~5 약 4cm ± 1~5

이와 같은 계측치를 통해 드림부 너비와 높이의 상관관계, 드림부 너비와 악면 두께의 상관관계를 살펴 불국사 경내 출토 귀면문암막새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도표3.·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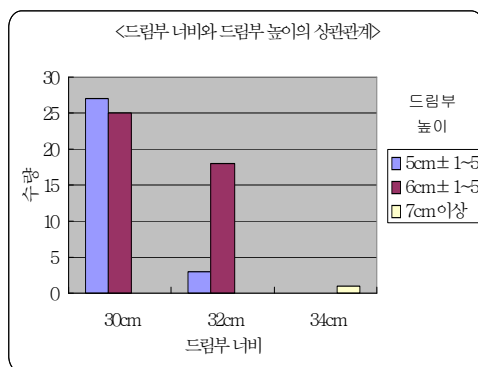


도표 1. 드림부 너비와 높이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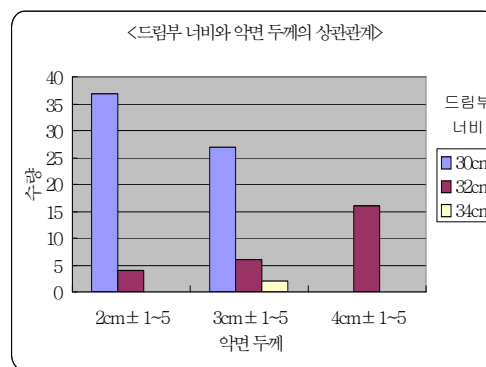


도표 2. 드림부 너비와 악면 두께의 상관관계

첫째, 드림부 너비가 약 30cm인 귀면문암막새는 79점으로, 대체로 드림부 높이는 약 5cm±1~5 또는 약 6cm±1~5이며 악면 두께는 약 2cm±1~5이다.

둘째, 드림부 너비가 약 32cm인 귀면문암막새는 43점으로, 대체로 드림부 높이는 약 6cm ± 1~5이며 악면 두께는 약 4cm ± 1~5이다.

셋째, 드림부 너비가 약 34cm인 귀면문암막새는 2점으로, 대체로 드림부 높이는 동 범위로 판단되는 불국사 경내 출토 귀면문박공막새 참고할 때 약 7cm 이상이며 악면 두께는 약 3cm ± 1~5이다.

귀면문암막새 대다수의 계측치는 첫 번째 경우로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보다 드림부의 크기가 작다. 이는 문양을 적을 공간이 불국사 경내 출토 귀면문

암막새 중 가장 좁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귀면문암막새는 문양이 문양면을 꼭 채운 듯하다. 다음으로 많이 계측되는 치수는 두 번째의 경우로 첫 번째 경우와 크기 차이는 적지만 그보다 문양면의 공간이 여유롭다. 악면은 귀면문암막새 중 가장 두꺼운 것으로 악면문양 역시 크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우는 소량 확인되는 것으로 귀면문암막새 중 드림부의 크기가 가장 큰 경우로 문양이 꼭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문양의 크기도 크다.

4) 색조

기와의 표면에서 나타나는 색조는 1차적으로 제작당시 태토·소성온도·와요의 구조와 와공의 의도 등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2차적으로 지붕에 기와가 사용될 당시 받은 자연적인 영향과 기와건물의 화재로 인한 불의 영향·출토되기 전 땅속에 묻혀 있을 때의 흙과 수분 등의 영향 등으로 인해 색조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동형의 암막새라 하여도 색조는 다를 수 있다.

5) 소성도

기와의 소성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손톱이나 손으로 관찰 가능한 범위에서 124점의 귀면문암막새의 소성도를 체크하였다. 그 결과 크게 경질소성과 와질소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1) 경질소성(경질) : 손톱으로 긁었을 때 손톱이 긁힐 정도로 단단한 것

(2) 와질소성(와질) : 손으로 문질렀을 때 가는 입자가 묻어나오고
손톱으로 긁었을 때 표면이 긁힐 정도로 무른 것

6) 태토

태토는 기와를 만드는 원료를 지칭하는 용어로 그 구성성분을 점토와 규사(비집)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규사는 점토의 수축률을 조절하기 위하여 탈점제의 기능으로 점토에 혼입하여 사용하는 것이다.⁷³⁾ 이 규사는 세사립과 같은

73) 김형순, 「옛 기와를 통한 고고학 연구」, 『섬진강 주변의 백제산성』, 제23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 발표대회, 2000, p. 136.

것으로 기와의 소성과정에서 뒤틀리고 균열이 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라기와는 대체로 7세기 말 전후로 하여 규사(비집)의 함유량에 차이가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기도 한다. 그런데 7세기 말 이후에는 규사의 함유량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가 되면 그 함유량이 월등히 많아진다. 따라서 통일신라 이후의 막새기와는 규사의 함유량 보다는 어떤 물질의 규사를 사용하였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떤 특징이 있는 물질을 규사로 사용하였는지는 육안으로 파악이 어려우므로 본 논문에서는 육안으로 파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124점의 귀면문암막새를 관찰하였다.⁷⁴⁾ 그 결과 크게 4가지로 구분되었다.

- (1) 0.1~0.2cm 내의 백색 세사립이 다량 확인되는 것
- (2) 0.1~0.2cm 내의 석영입자가 다량 확인되는 것
- (3) 0.1~0.2cm 내의 석영입자와 미세한 백색 세사립이 다량 확인되는 것
- (4) 0.1~0.2cm 내의 상당히 많은 양의 석영입자와 백색 또는 흑색 세사립 다량이 확인되는 것

74) 慶州大學校博物館, 앞의 책, 2006, pp. 171~177, 유물기술 참조.

표 4. 귀면문암막새 분류기준 검토

번 호	드림부 문양면 형태															드림 부 와 면 의 비 율	접 합 기 법	크기(cm)			색조		소 성 도	태 도	
	귀 면 형태																	드림 부 추 정 너 비	드림 부 높 이	악 면 두 께	표 면	단 면 속 심			
	볼			눈 주변 형태			코와 입의 형태			수염		귀		발											
	C 자 형	C 형 태		A	B	C	a	b	c	d	C 자 형 의 2 가 닥	/ 형 태 의 3 가 닥	가 늘 고 진 행 태		숫 자 3 형 태										무 유
1																	무	I	32	6	-	회색	회색	경질	4
2																	무	I	32	-	-	회색	회색	경질	4
3																	무	I	32	-	-	회색	회색	경질	4
4																	복-1	I	34.4	-	3	회색	회색	경질	4
5																	복-1	I	34.4	-	3	회색	회색	경질	2
6																	기 능	I	29.6	5.6	3	회색	회색	경질	2
7																	기 능	I	29.6	-	3	회색	회색	경질	2
8																	기 능	I	29.6	-	2.9	회색	회색	경질	2
9																	기 능	I	29.6	5.6	3	회색+회색	회색	와질	2
10																	기 능	I	29.6	6	3	회색	회색	와질	2
11																	기 능	I	29.6	-	2.8	회색	회색	와질	2
12																	기 능	I	29.6	-	3	회색	회색	와질	2
13																	기 능	I	29.6	-	3	회색	회색	경질	1
14																	-	I	29.6	-	-	회색	회색	와질	2
15																	기 능	I	29.6	-	3	회색	회색	와질	2
16																	-	I	29.6	-	-	회색+회색	회색	와질	2
17																	기 능	I	29.6	5.6	3	회색	회색	와질	2
18																	기 능	I	29.6	-	3.3	회색	회색	와질	2
19																	기 능	I	29.6	5.8	3.4	회색	회색	와질	2
20																	복-2	I	30.4	5.9	2.5	회색	회색	와질	2
21																	복-2	I	30.4	-	2.7	회색	회색	와질	2
22																	복-2	I	30.4	5.3	2.1	회색+와질색	와질색	와질	2
23																	복-2	I	30.4	5.8	2.1	와질색	와질색	와질	2
24																	복-2	I	30.4	-	2.7	회색	회색	와질	2
25																	복-2	I	30.4	5.6	2.1	와질색	진황색	와질	2
26																	복-2	I	30.4	-	2.7	회색	회색	와질	2
27																	복-2	I	30.4	5.4	2.4	회색+회색	회색	와질	2
28																	복-2	I	30.4	5.7	2.7	특갈색	열은 황색	와질	2
29																	복-2	I	30.4	5.9	2.5	회색	회색	와질	2
30																	복-2	I	30.4	-	2.4	와질색	진황색	와질	2
31																	복-2	I	30.4	-	2.6	회색	회색	와질	2
32																	복-2	I	30.4	-	-	등색	열은 등색	와질	2
33																	복-2	I	30.4	-	2.6	회색	회색	와질	2
34																	복-2	I	30.4	5.8	2.2	회색	회색	와질	2
35																	복-2	I	30.4	-	2.1	회색	회색	와질	2
36																	복-2	I	30.4	6	2.1	회색	회색	와질	2
37																	복-2	I	30.4	5.2	2.2	회색	회색	와질	2
38																	복-2	I	30.4	5.4	-	와질회색	회색	와질	2
39																	복-2	I	30.4	5.5	-	회색	회색	와질	2
40																	복-2	I	30.4	5.5	2.4	회색	회색	와질	4
41																	복-2	I	30.4	5.5	2.4	회색	진황색	와질	2
42																	복-2	I	30.4	-	2.1	회색	회색	와질	2
43																	복-2	I	30.4	-	2.1	특색	회색	와질	2
44																	복-2	I	30.4	5.8	-	와질회색	와질회색	와질	2
45																	복-2	I	30.4	-	2.7	회색+회색	회색	와질	2
46																	복-2	I	30.4	5.5	2.6	회색	회색	와질	2
47																	복-2	I	30.4	5.4	2.1	와질회색	갈색	와질	2
48																	복-2	I	30.4	-	-	회색+회색	회색	와질	2
49																	복-2	I	30.4	5.8	2.7	회색	회색	와질	2
50																	복-2	I	30.4	5.5	2.2	회색	회색	와질	2
51																	복-2	I	30.4	-	2.5	회갈색	열은 갈색	와질	2
52																	복-2	I	30.4	5.7	2.3	와질회색	진황색	와질	2
53																	복-2	I	30.4	5.8	2.5	회색	회색	와질	2
54																	복-2	I	30.4	5.8	2.6	회색	회색	와질	2
55																	문-1	II-I	32	-	-	열은 황등색	황색	와질	4
56																	문-1	II-I	32	-	-	회색	회색	경질	4
57																	-	II-I	32	-	-	황회색	열은 등색	와질	4
58																	문-1	II-I	32	6.2	3.5	황회색	명황갈색	와질	4
59																	문-1	II-I	32	6.1	3.8	회색	회색	경질	4
60																	문-1	II-I	32	-	-	회색	황색	와질	4
61																	-	II-I	32	-	-	황회색	진황색	와질	4
62																	문-1	II-I	32	5.8	-	황회색	회색	와질	4
63																	문-1	II-I	32	6	3.8	회색	회색	경질	4

[illegible]

3. 형식분류

불국사 경내 출토 귀면문암막새의 형식분류에 앞서 총 147점의 암막새 중 124점 출토한 귀면암막새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24점은 모두 드림부편으로 이들을 직접 관찰하여 확인한 다양한 속성 중 드림부 문양, 접합기법, 크기, 색조, 소성도, 태토 등을 형식분류에 앞서 살펴보았다(표 5. 참조). 그 결과 귀면문암막새의 변천을 가장 잘 보여 준다고 판단되는 속성은 드림부의 문양이었다. 이에 따라 문양면의 각 단위문양인 귀면과 좌우장식 문양의 형태를 중요시하여 앞서 살펴본 다양한 속성을 참고 했을 때 총 4가지 형식으로 구분되었다.

1) 귀면문암막새 I 형식

형상국은 얼굴의 전형적인 귀면을 중심으로 귀면의 양쪽 입 꼬리에서 토해져 나오는 당초상의 운기문이 좌우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는 귀면문암막새이다(표 5에 1~19번까지).



삽도 4. 귀면문암막새 I 형식-①

① 귀면문암막새 I-① (삽도 4)

3점으로 모두 드림부편이다.

문양이 굵은 2조의 돌선으로 표현되었다. 귀면은 'C'자형으로 둥글게 흰 뿔과 법씨모양의 눈동자가 확인되는 날카로운 눈, 눈 중간에 들창코, 송곳니가 확인되는 좌우로 벌어진 입이 확인된다. 귀면의 입 꼬리에서 토해져 나온 당초문상의 운기문

중간 아랫부분에서 물방울상의 작은 돌기가 확인된다. 약면은 무문으로 드림부 배면과 완만하게 이어진다. 드림부와 암키와는 접합기법 I 과 같이 접합되었다. 태토 속에는 1~3mm 내의 석영입자와 백색 세사립이 다량 확인되고 표면이 대체로 회색을 띠는 경질소성이다.

드림부의 추정 너비 : 약 32cm, 드림부 높이 6cm.



삽도 5. 귀면문암막새 I 형식-②

② 귀면문암막새 I-② (삽도 5, 6)

2점으로 모두 드림부편이다.

문양은 굵은 2조의 돌출된 선과 함께 도드라지게 표현되었다. 들창코와 송곳니와 앞니가 확인되는 귀면의 입과 당초상의 운기문이 일부 남



삽도 6. 귀면문암막새 I 형식-②와 동범
와로 판단되는 박공막새

아있다. 귀면의 입 꼬리에서 토해져 나온 당초상의 운기문 중간 아래 부분에서 원형의 작은 돌기(突起)가 확인된다. 전체적인 문양의 형태와 크기는 동일한 범상(范傷 : 틀에 나타난 흠집)을 통해 동범와로 판단되는 박공막새를 참고하였다. 악면문양은 복합문1(표 2. 참조)이다. 드림부와 암키와는 접합기법 I 과 같이 접합되었다. 태토 속에는 대체로 석영입자가 다량

확인되고 표면이 회색을 띠는 경질소성이다.

드림부 추정 너비 : 약 34cm, 드림부 높이 : 약 7.2cm, 악면 두께 : 3cm.

③ 귀면문암막새 I-③ (삽도 7, 8)



삽도 7. 귀면문암막새 I 형식-③

14점으로 드림부편이다.

문양은 가는 2조의 얇은 돌선으로 표현되었다. 귀면은 'C'자형의 둥글게 흰 뿔과 양 끝이 뾰족한 굵은 눈썹 아래 날카로운 눈, 들창코, 날카로운 송곳니와 앞니가 확인되는 좌우로 벌어진 입이 확인된다. 특히, 이빨이 주연까지 찌혀 있어 마치 주연을 꼭 깨물고 있는

듯하다. 귀면의 양쪽 입 꼬리에서 토해져 나오는 당초상의 운기문은 아래 중간 부분에서 3개의 크기가 다른 물방울 모양의 문양이 확인된다. 악면문양은 기하학적 능형문이다. 드림부와 암키와는 접합기법1과 같이 접합되었고 암키와부는 태선조문의 장판기와이다(삽도 8). 태토 속에는 1mm 내의 미세한 백색 세사립 다량 또는 1~3mm 내의 석영입자가 다량이 확인된다. 표면이 대체로 회색을 띠는 와질소성이다.



삽도 8. 귀면문암막새 I 형식-③의 암키와부 타날문양

드림부 추정 너비 : 약 30cm, 드림부 높이 : 약 5.5~6cm, 악면 두께 : 약 3cm.

(1) 공통점

① 귀면은 'C'자형으로 흰 큰 뿔과 들창코, 앞니와 송곳니가 표현된 입가지고 있다. 전형적인 귀면의 형태로 험상궂은 얼굴 형태이다(삽도 9).



삽도 9. 귀면문암막새 I 형식의 귀면 형태(왼쪽부터 귀면문암막새 I 형식-①·②·③)



삽도 10. 귀면문암막새 I 형식의 좌우장식 문양 중간 아래 부분 문양(왼쪽부터 귀면문암막새 I 형식-①·②·③).

② 귀면의 양쪽 입꼬리에서 토해져 나오는 당초상의 운기문이 장식되어 있다. 특히 II·III형식에서 귀면의 발이 확인되는 위치와 동일한 부분에서 물방울상의 돌기, 원형돌기, 3개씩 무리지어 표현된 물방울상의 문양이 확인된다(삽도 10).

② 접합기법은 접합기법 I 이다(삽도 3. 참조).

접합기법 I 은 암키와를 접합하기 위해 드림부 배면을 형성한 점토를 뒤로 뒤집어 가며 드림부 상면을 2겹으로 절개한 기법이다. 암막새의 형태가 호상(弧狀)이라는 점과 드림부의 너비가 약 30cm 이상으로 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번에 절개하는 것은 쉽지 않는 작업이다. 이는 몇 번에 걸쳐 끊어지며 이어진 대칼의 흔적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드림부와 암키와부의 접합 각도는 90°에 가깝고 소량의 보죽점토를 사용하였다. 보죽점토는 본래 드림부와 암키와의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것 즉, 접합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본 접합기법에서는 드림부 배면을 형성하던 점토가 그 역할을 충분히 대신하였기 때문에 적은 양의 보죽점토가 사용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암키와부의 접합면

에는 요철을 가하여 접합력을 높였다(삽도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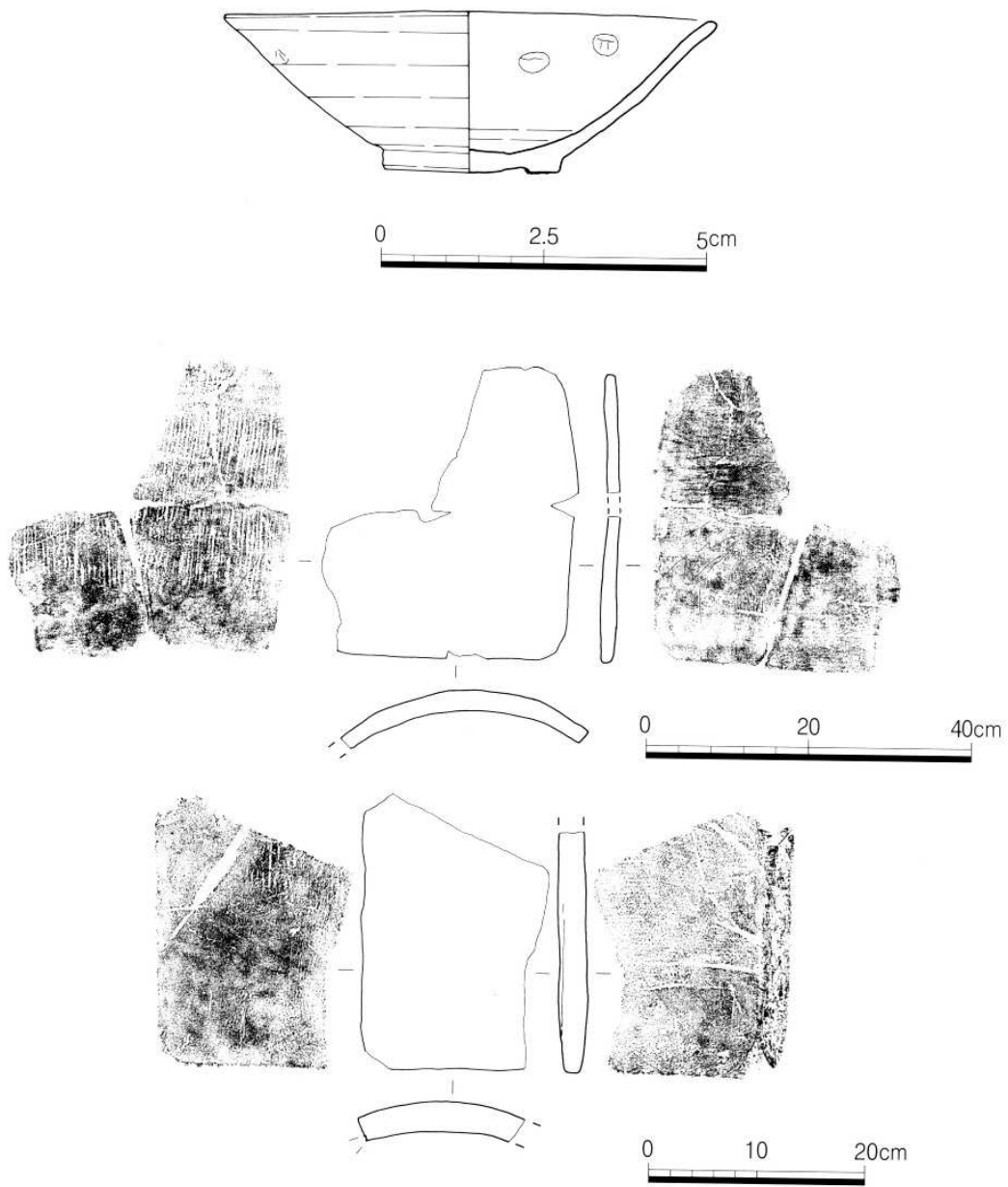
따라서 접합기법 I 은 드림부에 암키와를 접합할 부분을 만들기 위해 대칼로 절개하는 수고를 한번만 행하였다는 점과 드림부 자체의 점토를 활용하여 보축점토의 효과를 내었다는 점에서 시간과 경제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기법이라 판단된다. 더욱이 접합력을 높이기 위한 암키와부의 흠집 흔적을 통해 효율적이면서도 기능적인 기법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접합기법 I 에 사용된 암키와부는 모두 선조문의 장판타날 암키와로 고려시대 막새기와의 접합기법일 가능성이 높다. 불국사 경내에서 매납된 상태로 안정된 층에서 출토한 한국식 해무리굽완의 주위에 둘러져 있던 태선조문의 암키와는 아래와 같은 특징이 확인되며 이는 귀면문암막새 I 형식의 암키와부의 철면 타날문, 요면 포목흔, 두께, 태토, 소성도 등이 일치하는 것으로 동일한 공방지에서 동일한 시점에 만든 기와라 판단된다.

- 태선조문의 장판타날 암키와이다.
- 조밀하지 않은 포목으로 얇게 찍혀 선명하지 않다.
- 윤철흔이 확인되지 않는다.
- 단부조정흔적이 확인된다.
- 두께는 최소 2.2cm에서 최대 2.8cm까지 확인된다.
- 태토 속에는 1~3cm 내외의 석영입자 다량이 확인되면 깨진 단면이 거칠다. 손으로 표면을 문질렀을 때 가는 입자가 묻어나오며 석영입자가 떨어져 나간다. 손톱으로 긁었을 때 얇은 흠이 생길 정도의 무른 와질소성이다.

③ 태토 속에는 1~3cm 내외의 석영입자가 다량 확인된다.

석영이 태토 속에 다량 포함되어 있어 깨어진 단면이 거칠다. 또한 표면을 물손질로 정면하는 과정에서 석영입자가 어지럽게 밀려있는 흔적을 확인 할 수 있다.



도면 1. 불국사 경내 출토 매납유물

(1 : 한국식해무리굽완 2·3 : 태선조문의 장판타날 암키와)

(2) 차이점

① 귀면의 표현방식의 차이(삽도 9)

- 첫째, 돌선 하나로 간결하게 표현되었다(귀면문암막새 I-①).
- 둘째, 도드라지게 요철로 표현되었다(귀면문암막새 I-②).
- 셋째, 테두리선이 돌아가고 내부는 도드라지게 표현되었다(귀면문암막새 I-③).

② 귀면의 눈 주변 형태의 차이(삽도 9)

- 첫째, 눈의 윗부분 테두리가 굵게 표현되어 눈썹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귀면문암막새 I-①).
- 둘째, 첫 번째 경우와 유사하지만 그 형태가 3번 굴곡 지는 것이 아래 세 번째 경우의 생김새와 유하다(귀면문암막새 I-②).
- 셋째, 끝이 살짝 올라간 눈썹이 확인된다(귀면문암막새 I-③).

③ 악면문양의 차이(삽도 11)

무문, 복합문1, 기하학적 능형문의 서로 다른 3가지 악면문양이 확인된다(삽도 11). 이 중 ‘복합문1’은 불국사 경내 출토 복판연화문 I 수막새⁷⁵⁾의 악면문양과 유사하여 세트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삽도 11. 귀면문암막새 I 형식의 악면문양 (왼쪽부터 귀면문암막새 I 형식-① · ② · ③)

④ 드림부의 크기 차이(표 5. 참조)

우선, 귀면문암막새 I-①은 드림부 추정 너비 약 32cm, 드림부 높이 약 6cm이다. 악면은 드림부 배면과 완만하게 연결되어 측정이 어렵다. 귀면문암막새 I-②은 드림부 추정 너비 약 34cm, 드림부 높이 7cm, 악면 두께 약 2cm±1~5이다. 마지막으로 귀면문암막새 I-③은 드림부 추정길이 약 30cm, 드림부

75) 경주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2006, pp. 171~186. (도면77-6~8, 도판90-9~11).

높이 약 6cm±1~5, 악면 두께 약 3cm±1~5이다.

④ 암키와부 흠집의 차이(삽도 12).

귀면문암막새 I 형식-①은 날 끝이 합인(合刃)인 도구를 사용하여 비스듬하게 눌러 가며 거칠게 흠집을 낸 것이며 귀면문암막새 I 형식-②는 가늘고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X'자 형태로 그어서 흠집을 낸 것이다(삽도 12). 차이점①·②·③의 문양상의 차이와 차이점④의 크기 차이를 통해 최소 3개의 서로 다른 와범이 사용되었다는 점과 함께 암키와부 흠집 흔적의 차이에 의해 와범 이외에 암막새를 제작하는 도구에 차이가 있었음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접합기법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동일한 공방 내에서⁷⁶⁾ 서로 다른 습관을 가진 와공에 의해 제작되었을 가능성과 귀면문암막새 I 형식-①·②·③이 짧은 시간차를 두고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상정된다.



삽도 12. 귀면문암막새 I 형식 암키와부 흠집 형태

(왼쪽부터 귀면문암막새 I 형식-①의 드림부 배면 상단에 찍힌 암키와부의 흠집 흔적과 암키와부 흠집 흔적, 귀면문암막새 I 형식-③)

⑤ 외형틀의 사용 여부

- 외형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귀면문암막새 I -①

단면에서 확인되는 점토의 채움 양상이 토층처럼 층층이 쌓여진 형태이며⁷⁷⁾,

76) 유사한 접합기법이 사용되었다고 하여 동일한 공방에서 제작되었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 없지만 드림부의 문양이 유사한 형식이며 접합기법 I 이 불국사 경내 이외의 유적에서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여러 공방지에서 사용되었다고 쉽게 생각 할 수 없다. 하지만 조사자의 관찰력 부족으로 인해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성과를 기대 할 수 있겠다.

77) 본인이 불국사 경내 출토 귀면문암막새를 관찰한 결과 악면에 문양이 확인되어 외형틀의 존재가 인정되는 예들의 단면 형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토 채움의 과정이 상정되었다.

우선, 와범에서 드림부의 문양면에 해당하는 부위에 얇게 점토를 채우고, 문양면과 외형틀이 맞닿은 부분부터 소량의 점토를 채워 대강의 드림부 문양과 형태를 잡아 놓는다. 그 다음 내부에 점토를 채워 넣어 드림부를 완성한다.

이상의 점토 채움 과정으로 인해 문양면과 악면 사이에 채워진 점토는 비스듬히 경사지게 쌓여 있

배면과 악면이 완만하게 이어진 점에서 외형틀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⁷⁸⁾ 드림부 상면과 악면 부분에서 와범의 외형틀에 의해 밀려 경사진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 외형틀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귀면문암막새 I-②·③

모두 악면문양이 확인되는 경우로 외형틀의 존재를 당연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외형틀이 와범에 고정되어 있었던 것인지 분리되어 있던 것인지에 대해 생각한다면 귀면문암막새 I-②와 동범와로 판단되는 불국사 경내 출토 귀면문박공막새(삼도 6)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즉, 박공막새를 만들기 위해서는 암키와의 악면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암키와를 접합해야 하기 때문에 외형틀은 와범과 분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귀면문암막새 I-②에서 외형틀은 와범과 분리된다고 하겠다.

2) 귀면문암막새 II 형식

극도로 생략된 입을 지닌 귀면을 중심으로 귀면의 수염 아래에서부터 시작하는 2개의 운기문 덩어리가 서로 교차하며 조화를 이룬 문양이 좌우대칭으로 배치된 귀면문암막새이다(표 5에 20~54번까지). 특히, 귀면에 근접한 운기문의 끝에서 귀면의 발이 확인된다. 동형의 귀면문암막새가 석굴암, 불국사, 황룡사지에서 통일신라시대 암막새로 보고되었다.

- 귀면문암막새 II 형식(삼도 13 14)



삼도 13. 귀면문암막새 II 형식

35점으로 모두 드림부편이다.

문양은 가늘고 얇은 2조의 가는 돌선으로 표현되어 매우 회화적이다. 드림부 중앙의 귀면은 'C'자형의 수염이 2가닥씩 좌우로 배치되어 있고, 'V'자 형태로 극도로 생략된 입을 가지고 있다.

특히, 귀면에 근접한 운기문의 끝에서 3개의 갈고리 모양 발가락으로 구성된

발이 확인된다. 귀면의 좌우 운기문은 귀면의 수염 아래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 운기문

다. 이는 점토가 층위처럼 층층이 쌓여있는 악면문양이 무문인 귀면문암막새와 다른 양상이다.

78) (吉井秀夫 外, 앞의 논문, 1994, p. 42.)에서는 드림부 배면과 악면이 직각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외형틀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드림부 배면과 악면이 직각이 아니라 완만하게 각이 없이 이어진다면 외형틀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삼도 14. 귀면문암막새 II형식 암
키와부 타날문양

덩어리와 첫 번째 운기문 덩어리 아래에서 시작하는 두 번째 운기문 덩어리가 서로 엇갈리며 교차한다. 악면에는 ‘복합문2’가 확인된다.

드림부와 암키와는 접합기법1과 같이 접합되었고 암키와부는 세선조문의 장판타날 암키와이다. 태토는 1~2mm 내의 석영입자가 다량 확인된다. 표면이 대체로 회색을 띠지만 2차적으로 불 맞은 듯한 암회색과 암청회색의 짙은 색도 확인된다. 이들은 대부분 와질소성이다.

드림부 추정 너비 : 약 30cm

드림부 높이 : 약 5.5~6cm

악면 두께 : 약 2~2.5cm

① 문양은 전체적으로 가늘고 얇은 2조의 돌선으로 표현되어 회화적이다.

② 귀면은 전형적인 귀면 형태보다 생략적이다. 뿔과 날카로운 이빨 등의 험상궂은 표현은 없고 수염과 귀가 확인된다. 험상궂기 보다는 부드러운 인상을 준다.

③ 귀면의 좌우에는 2개의 덩어리가 교차하는 운기문 장식되어 있다. 양쪽 수염 아래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 운기문 덩어리 끝에는 새의 발과 유사한 귀면의 발이 확인된다. 귀면문암막새 III형식의 운기문과 동일한 구성이다.

④ 악면문양은 ‘복합문2’로 외형틀의 존재가 생각된다.

불국사 경내 출토 중판연화문 I 수막새⁷⁹⁾, 중판연화문 VIII 수막새⁸⁰⁾, 중판연화문 IX 수막새⁸¹⁾의 악면문양과 유사하다. 이중 중판연화문 VIII 수막새와 중판연화문 IX 수막새는 악면문양 이외에 접합기법과 태토가 유사한 것으로 세트관계로 판단된다.

⑤ 드림부 크기는 드림부의 추정 너비 30cm, 드림부 높이 약 5cm±1~5,

79) 경주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2006, pp. 150~171, (도면78-1~3, 도판91-7~9).

80) 경주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2006, pp. 150~171, (도면79-1~5, 도판92-3~7).

81) 경주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2006, pp. 150~171, (도면79-6·7, 80-1, 도판92-8~10).

악면 두께 약 $2\text{cm} \pm 1 \sim 5$ 이다.

⑥ 접합기법은 접합기법 I 이다(삽도 3. 참조).

귀면문암막새 I 형식의 접합기법과 동일한 기법이다. 암키와부는 세선조문의 장판타날 암키와로 불국사 경내 출토 시설기와(도면 2)의 철면 타날문, 요면 포목흔, 두께 등의 특징과 유사하다. 이는 아래와 같다.

- 세선조문의 장판타날 암키와이다.
- 조밀하지 않은 포목으로 얇게 찍혀 선명하지 않다.
- 윤철흔이 확인되지 않는다.
- 단부조정흔적이 확인된다.
- 두께는 최소 1.8cm에서 최대 2.4cm까지 확인된다.



삽도 15. 귀면문암막새 II형식 암키와부 흠집 형태(좌 : 드림부 배면에 흠집이 찍힌 흔적, 암키와부의 흠집 흔적)

⑦ 암키와부의 접합면은 날 끝이 합인(合刃) 형태인 도구로 눌러 흠집을 내었다(삽도 15).

⑧ 태토 속에는 1~2mm 내외의 석영입자가 다량 확인되는 와질소성으로 1mm 내의 미세한 백색세사립도 다량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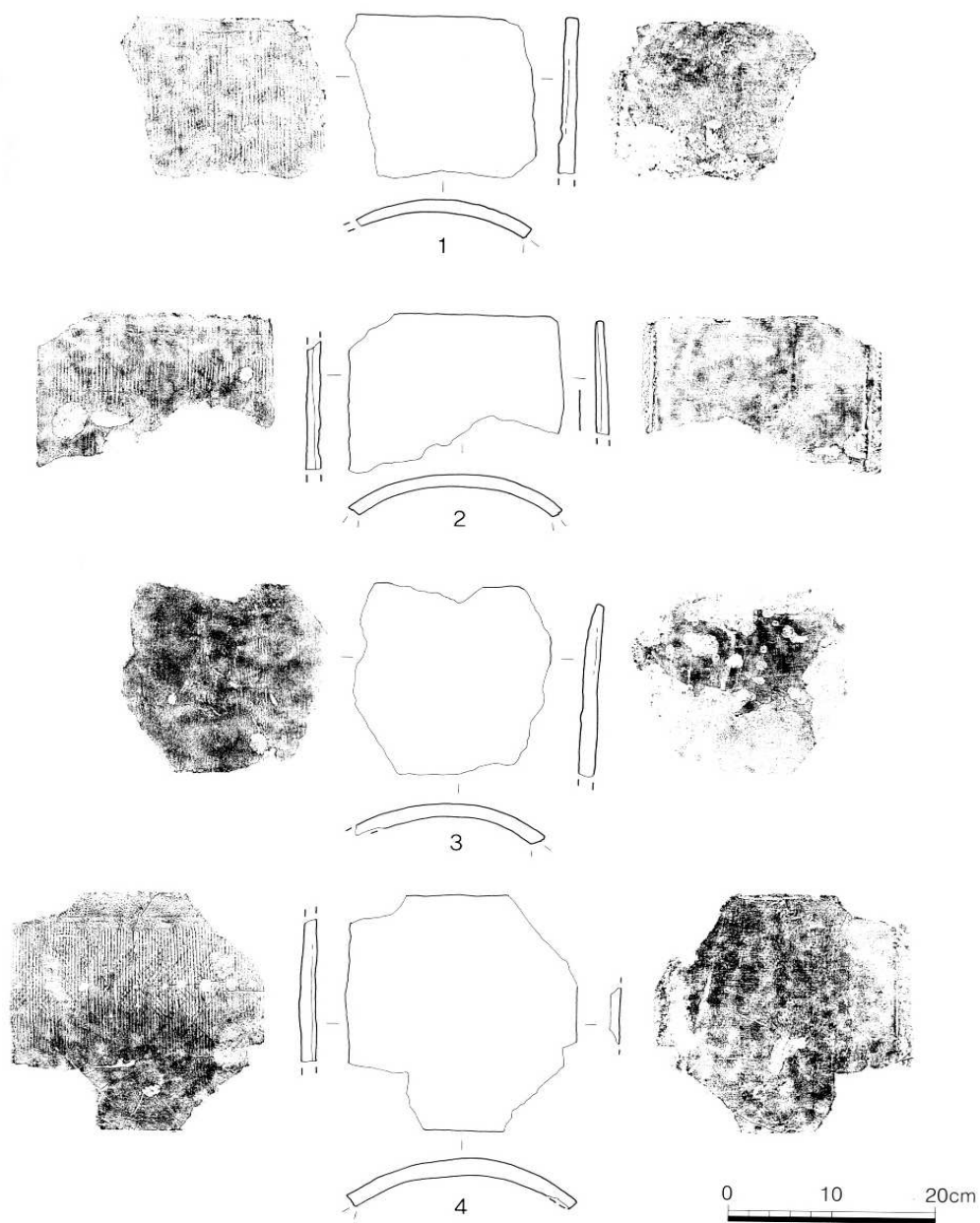
3) 귀면문암막새 III형식

코와 입이 하나로 합쳐져 새 부리 모양과 같이 생긴 부위를 지닌 귀면을 중심으로 귀면문암막새 II형식과 동일한 구성의 운기문이 좌우대칭으로 장식되어 있는 귀면문암막새이다(표 5에 55~116번까지). 귀면문암막새 II형식과 마찬가지로 새의 발과 유사한 귀면의 발이 확인된다. 동형의 귀면문암막새가 불국사, 석굴암, 고선사지, 인왕리폐사지에서 보고되었다.

① 귀면당초문 III형식-①(삽도 16)

30점으로 모두 드림부편이다.

문양은 도드라지게 표현되어 입체적이다. 귀면은 희미한 굴곡으로 경계지어 있는 눈동자와 눈꺼풀 주위로 투구와 같은 장식이 감싸고 있고 눈 아래에는 수염과 귀가 위치한다. 이들은 모두 코와 입이 하나로 합쳐져 새 부리 모양과 같은 부위를 중심으로



도면 2. 불국사 경내 출토 시설기와(1~4)



삽도 16. 귀면문암막새 III형식-①

로 좌우대칭을 이룬다. 귀면의 좌우에는 귀면문암막새 II형식과 동일한 구성의 운기문이 좌우대칭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첫 번째 운기문 덩어리의 끝에서 발끝이 살짝 꺾여 있는 귀면의 발이 확인된다.

드림부와 암키와는 접합기법 II-1과 같이 접합되었고 암키와는 세선조무의 장판타날 암키와 이다. 악면에는 ‘운기문1’이 확인된다. 태토는 1~2mm 내외의 석영입자가 다량과 백색 또는 흑색 세사립 다량이 확인된다. 대부분 와질소성이다.

드림부 추정 너비 32cm, 드림부 높이 : 약 5.5~6.3cm, 악면 두께 : 약 3.3~4.2cm.



삽도 17. 귀면문암막새 III형식-②

② 귀면당초문 III형식-②(삽도 17)

10점으로 모두 드림부편이다.

문양은 도드라지게 표현되었지만 입체적이기 보다는 평면적이다. 귀면과 좌우장식 문양 그리고 악면문양은 귀면문암막새 II형식-①과 유사하지만 그 보다 문양의 크기가 작은 듯하다.

특히, 귀면의 발은 관절과 발톱의 표현이 귀면

문암막새 중 가장 사실적이다. 드림부와 암키와는 접합기법 II-1과 같이 접합되었다. 태토 속에는 태토는 1~2mm 내외의 석영입자가 다량과 1mm 내외의 미세한 백색 세사립이 확인된다. 경질소성이 대부분이다.

드림부 추정 너비 32cm, 드림부 높이 : 약 5.5~6cm, 악면 두께 : 약 2.3~2.8cm.



삽도 18. 귀면문암막새 III형식-③

③ 귀면당초문 III형식-③(삽도 18)

1점으로 드림부편이다. 문양은 도드라지게 표현되어 있는데 손가락에 의해 뭉개진 부분이 많고 둔탁하며 조잡하다. 귀면은 끝이 반전하며 둥글게 말려있는 수평의 눈썹과 뭉개지고 둔탁하지만 귀면당초문 III형식-②와 유사하다. 귀면의 좌우에는 ‘운기문1’이 확인되며 귀면의 발은 확인할 수 없지만 문양의 전체적인 모습이 귀면당초문

III형식-②와 유사하므로 그 존재를 짐작할 수 있다. 악면은 무문으로 황방향의 물손질 흔적이 확인된다. 드림부와 암키와는 접합기법 III으로 접합되어 있는 듯하지만 출토 예가 적어 위의 귀면당초문 III형식-① ②와 동일한 접합기법이 가능성도 있다. 태토 속에는 1~2mm 내외의 백색 세사립이 다량 확인되면 경질소성이다.

드림부 추정 너비 30cm, 드림부 높이 : 약 5.4cm, 악면 두께 : 약 2.9cm.



삽도 19. 귀면문암막새Ⅲ형식-④

⑧ 귀면당초문 Ⅲ형식-④(삽도 19)

21점으로 모두 드림부편이다. 문양은 굵은 1조의 돌선으로 표현되어 문양의 기본 뼈대만 갖춘 듯 간략하다. 귀면과 좌우장식 문양은 귀면당초문 Ⅲ형식-① ②와 유사하다. 귀면문양 구성이 귀면당초문 V VI와 유사하다. 특히 귀면당초문 Ⅲ형식-④에서는 귀면은 정수리에 ‘C’형태의 뿔이 확인된다. 악면은 무문으로 횡방향 물손질 흔적이 확인된다. 드림부와 암키와는 접합기법Ⅳ와 같이 접합되었고 암키와부는 무문으로 요면에서 이전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윤철흔이 확인된다. 태토 속에는 1~3mm 내의 석영입자가 매우 다량 확인된다.

드림부 추정 너비 30cm, 드림부 높이 : 약 5~5.7cm, 악면 두께 : 약 1.5~2.6cm.

(1) 공통점

① 귀면은 새의 부리와 새의 발의 모양과 유사한 형태의 부위가 확인되어 전형적인 귀면의 형태라기보다는 새의 모습이 조두의 얼굴과 같다(삽도 20)



삽도 20. 귀면문암막새 Ⅲ형식의 귀면 형태(왼쪽부터 귀면문암막새 Ⅲ형식-① · ② · ③ · ④)

② 새의 부리와 같은 부위(삽도 21)와 귀면을 향하고 있는 귀면의 발(삽도 22)

- 귀면문암막새 Ⅲ형식-① : 부리 끝이 뾰족하여 날카로운 인상을 주며 사선의 홈으로 표현된 콧구멍이 확인된다. 새의 부리와 가장 많이 닮아 있다.
- 귀면문암막새 Ⅲ형식-② : 부리 끝이 둥글어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인상을 주며 콧구멍이 확인된다.
- 귀면문암막새 Ⅲ형식-③ : 부리가 파손되고 뭉개져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귀면-6과 동일한 형태라 판단된다.

- 귀면문암막새 Ⅲ형식-④ : 부리가 길며 중간에 횡으로 굴곡이 지는 것으로 마치 도토리 모양과 닮아 있다. 콧구멍은 확인되지 않는다.



삽도 21. 귀면문암막새 Ⅲ형식의 부리 형태(왼쪽부터 귀면문암막새 Ⅲ형식-① · ② · ③ · ④)



삽도 22. 귀면문암막새 Ⅲ형식의 귀면의 발 (왼쪽부터 귀면문암막새 Ⅲ형식-① · ② · ④)

(2) 차이점

① 문양의 표현방식의 차이(삽도 16~19)

- 귀면문암막새 Ⅲ형식-① : 문양은 도드라지게 표현되어 입체적이다.
- 귀면문암막새 Ⅲ형식-② · ③ : 문양이 도드라지게 표현되었지만 납작하게 돌출되어 평면적이다.
- 귀면문암막새 Ⅲ형식-④ : 굽은 1조이 돌선으로 되어 문양의 뼈대만을 표현한 듯 단순하고 생략적이다.

② 악면문양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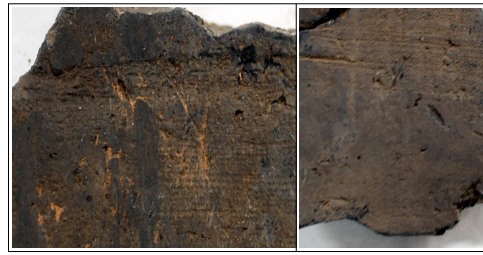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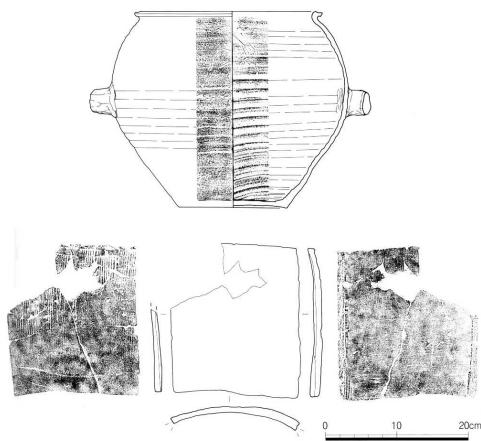
무문, 운기문1, 운기문2의 서로 다른 3가지 악면문양이 확인된다(삽도 23.)



삽도 23. 귀면문암막새 Ⅲ형식의 악면문양(왼쪽부터 귀면문암막새 Ⅲ형식-④ · ①, 귀면문암막새 Ⅲ형식-① · ②)

④ 접합기법의 차이

귀면문암막새 Ⅲ형식-① · ②은 접합기법Ⅱ-1, 귀면문암막새 Ⅲ형식-③는 접합기법Ⅲ, 귀면문암막새 Ⅲ형식-④은 접합기법Ⅳ가 확인된다. 이중 접합기법Ⅲ



삽도 24. 귀면문암막새 III형식-④의 암키와부의 요면 특징(왼쪽부터 윤철흔과 단부조정흔적)

도면 3. 불국사 경내 출토 매납토기

은 드림부 배면 상단에 단을 만들어 암키와를 접합한 것으로 접합기법Ⅱ-1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접합기법Ⅱ-1의 암키와부는 세선조문의 장판타날 암키와부로 불국사 경내에서 매납된 상태로 안정된 층에서 출토한 동이이의 뚜껑으로 사용된 암키와⁸²⁾와 동일하다(도면 3). 접합기법Ⅳ의 암키와부는 철면이 물손질로 깔끔하게 정면된 무문으로 요면에서 확인 윤철흔과 단부조정흔적이 관찰된다(삽도 24).

⑤ 암키와부 흠집의 차이(삽도 25).



삽도 25. 귀면문암막새 III형식 암키와부 흠집 형태(왼쪽부터 귀면문암막새 III형식-①·④)

귀면문암막새 III형식-①은 두 가지 형태의 흠집이 확인된다. 첫 번째는 날 끝이 가늘고 함인의 형태인 도구를 사용하여 ‘V’자를 한 세트로 지그재그 모

82) 경주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2006, pp. 58~64, (도면27, 28, 29, 도판151, 152, 153).

양으로 눌러가며 흠집을 만든 것이며, 두 번째는 가늘고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사선으로 그은 흠집이다. 이는 동일한 공방지 내에서 서로 다른 습관을 가진 와공들에 의해 동일한 시점에 만들어 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귀면문암막새 Ⅲ형식-④에서는 드림부 배면에 찍힌 사선 형태의 암키와부의 흠집은 비교적 넓게 떨어져있다. 암키와부 요면에서 윤철흔 확인되는 귀면문암막새 Ⅲ형식-④가 윤철흔이 확인되지 않는 귀면문암막새 Ⅲ형식-① 보다 늦게 제작된 것이라 판단된다.

4) 귀면문암막새 IV형식

삼각형 돌기로 표현된 주먹코 아래 좌우로 작게 벌려진 입 가진 귀면으로, 양쪽 입 꼬리에서 토해져 나오는 넝쿨상의 당초문이 좌우 대칭으로 장식된 귀면문암막새이다(표 5에 117~124번까지).

- 귀면문암막새 IV형식(삼도 26, 27)



삼도 26. 귀면문암막새 IV형식의 좌우 장식문양인 당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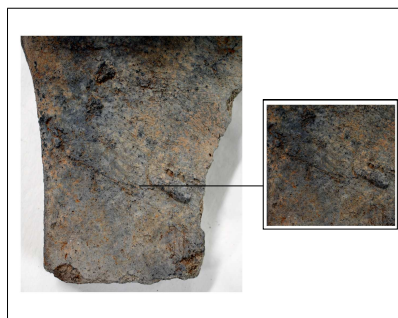
삼도 27. 귀면문암막새 IV형식의 귀면문

8점으로 드림부 파편이다.

문양이 굵은 1조의 돌선으로 표현되었다. 드림부 중앙의 귀면은 삼각형으로 돌출된 주먹코, 입술 위에 간략하게

표현된 이빨이 확인되는 작게 벌어진 입, 각(角)진 '3'자형의 넓게 펼쳐진 귀, '/'형태로 뺀 수염 등 지금까지 언급된 귀면 형태와 상이하다. 귀면의 양쪽 입 꼬리에서 뺀어 나가는 넝쿨상의 당초문이 좌우대칭으로 장식되어 있다. 악면에는 '당초문'이 확인된다.

드림부와 암키와는 접합기법Ⅱ-②와 같이 접합되었고 암키와부는 집선문의 장판타날 기와이다. 태토 속에서 1~2mm 내의 상당히 많은 양의 석영입자와 미세한 백색 세사립 다량이 확인된다. 이들은 대부분 경질에 가까운 와질소성이다.



삼도 28. 귀면문암막새 IV형식 암키와부 타날문양

드림부 추정 너비 30cm, 드림부 높이 : 약 5.8~6cm, 악면 두께 : 약 1.8~2.1cm.

① 귀면문암막새-I·II·III형식의 귀면과 상이 형태의 귀면이다(삽도 27).

주먹코, 작게 벌어진 입, 각 진 '3'자형의 넓은 귀, '/'형태의 수염 등은 협상 곳은 귀면의 얼굴도 아니고 새의 얼굴과 유사한 형태도 아닌 것으로 명확히 어떠한 형태라 말할 수 없는 귀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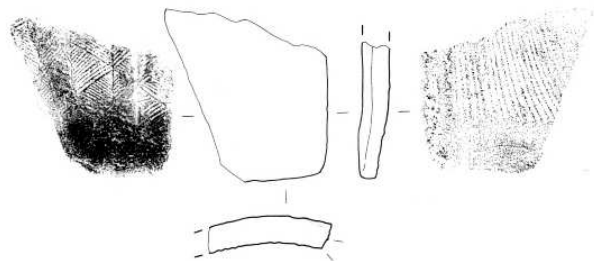
② 좌우 장식문양으로 넝쿨상의 당초문이 확인된다.

③ 악면문양은 넝쿨상의 당초문으로 불국사 경내 출토 중판연화문VI수막새⁸³⁾의 악면문양과 유사하다. 악면문양 외에도 접합기법과 태토가 유사한 것으로 세트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④ 드림부의 크기는 드림부 추정 너비 약 30cm, 드림부 높이 약 6cm±1~5, 악면 두께 약 2cm±1~5이다.

⑤ 접합기법은 접합기법II-②다(삽도 3. 참조)

드림부에 접합된 암키와부의 단면 형태는 'ㄷ'로 단부조정된 부분이 접합된 것이다. 암키와부는 집선문의 장판타날 암키와로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 단문암키와⁸⁴⁾(도면 4)와 아래와 같은 특징에서 동일하다.



도면 4. 불국사 경내 출토 집선문 암키와

- 집선문의 장차타날 암키와이다.
- 선명한 사절흔이 확인된다.
- 단부조정 흔적이 확인되나다.
- 태토 속에서 1~2mm 내의 상당히 많은 양의 석영입자와 미세한 백색 세사립 다량이 확인된다.

83) 경주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2006, pp. 150~171, (도면78-9·10, 도판91-15·16).

84) 경주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2006, p. 113·p. 126, (도면53-1, 도판80-6).

IV. 귀면문암막새의 변천과정

불국사 경내 출토 귀면문암막새 124점을 대상으로 형식을 나누고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드림부 중앙의 귀면 형태는 I 형식은 소위 벽사의 의미를 지닌 협상긔은 귀면의 모습이며 II~IV형식은 귀면의 특징을 다소 잃은 듯한 모습으로 뿔과 들창코·날카로운 이빨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좌우장식 문양 형태는 크게 2가지 형태로 운기문이 장식된 I~III형식과 당초문이 장식된 IV형식이다. 이중 운기문이 장식된 I~III형식은 귀면의 발이 확인되지 않는 I형식과 귀면의 발이 확인되는 II·III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발이 확인되는 II·III형식의 귀면은 새의 부리와 유사한 모양의 부위 확인되어 마치 새의 얼굴과 같다. 이상에서 언급된 형식분류를 기초로 앞서 살펴본 속성들과 함께 암키와부의 타날문양·요면 특징을 참고하여 3단계를 설정 하였다.

1. 1단계

귀면을 중심으로 당초상의 운기문이 좌우대칭으로 장식된 귀면문암막새이다. 뿔과 들창코, 좌우로 크게 벌어진 입, 날카로운 송곳니 등 소위 벽사의 의미를 지닌 협상긔은 귀면의 얼굴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다뤄진 귀면문암막새 중 가장 귀면 형태에 가까우며 귀면문암막새 I 형식이 이에 해당한다. 이 단계의 귀면문암막새에서는 다음 단계에서 확인되는 귀면의 발이 위치한 곳과 동일한 부분에 물방울상의 돌기·원형돌기·3개씩 무리지어 표현된 물방울상의 문양과 같은 것이 표현되어 있다. 이는 귀면의 발이 나타나기 전의 모습이라 생각된다. 이상의 문양의 형식학적인 특징으로 볼 때 1단계로 판단할 수 있다.

1단계에서는 각 단위문양 형태 차이와 드림부 크기 차이에 따라 최소 3개의 와범이 사용되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귀면문암막새 I 형식-①과 ③의 암키와부 홈집의 형태가 다른 것으로 와범 이외의 도구도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일한 공방 내에서 시간차를 두고 3개의 와범을 사용하여 귀면문암막새를 제작하였을 가능성과 동일한 공방 내에 서로 다른 습관을 가진 와공에 의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

1단계에 암키와부는 태선조문의 장판타날 암키와로 지금까지 연구성과에 의하면 고려시대일 가능성이 높다. 즉, 경주지역의 건물지 유적에서는 통일신라

로 판단되는 장판기와의 아직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경주이외의 지역에서는 부여 부소산성 출토 ‘「會昌七」「年丁卯」「年末印」(847)’명 기와⁸⁵⁾, 청주 흥덕사 출토 ‘大中三年(849)’명 기와 등⁸⁶⁾의 통일신라시대 장판기와의 예가 보고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지방에서는 적어도 9세기 중엽 이전에는 장판기와의가 사용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⁸⁷⁾ 그러나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지역에서는 이 시기에 해당하는 장판기와의 확인이 어려우며 통일신라시대의 중판기와의만이 출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통일신라시대에 장판기와의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에 따르면 장판기와는 경주지역에서 고려시대가 되어서야 비로써 사용되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따라서 귀면문암막새에 접합되어진 암키와부의 타날문양이 장판인 점에서 고려시대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1단계의 귀면문암막새는 접합기법1의 방법으로 드림부와 암키와가 접합되었다. 접합기법1은 윤철흔이 확인되지 않는 암키와를 드림부에 접합한 것으로 11세기 이전의 접합기법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귀면문암막새 I 형식-③의 암키와부와 타날문양, 포목흔, 태토, 소성도 등이 동일한 태선조문의 장판타날 암키와가 한국식 해무리굽완을 감싼 상태로 불국사 경내에서 매납된 상태로 안정된 층에서 출토되었다.

한국식 해무리굽완은 내저원각이 강하고 측사면(側射面)이 오프라들었으며 굽지름이 좁은 대신 접지면이 약 0.8~10mm에 가까운 것⁸⁸⁾으로 강진 용운리 9호, 삼흥리 D지구, 고창 용계리, 칠곡 창평리, 고흥 운대리, 해남 신덕리 등의 요지군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되었다⁸⁹⁾. 이중 고창 용계리에서는 ‘太平壬戌(1022)’명의 절대 년대를 가진 고려시대 기와가 출토되기도 하였다.⁹⁰⁾ 한국식 해무리굽완은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에 따르면 940년에서 1000년경 대량생산하는 모습이 보이고 1000년에서 1050년경에는 한국식 해무리굽완을 생산하는 가

85)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부소산성 발굴중간보고서Ⅲ』, 1999.

국립 청주박물관 청주인쇄출판박람회조직위원회, 『한국 고대의 문자와 기호유물』, 2000.

86) 국립청주박물관·청주인쇄출판박람회조직위원회, 『한국 고대의 문자와 기호유물』, 2000.

87) 조성운, 앞의 논문, 2003.

88) 이종민, 「韓國의 初期靑磁 研究」, 弘益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2, p. 118.

89) 이종민, 위의 논문, 2002, p. 118.

90) 국립전주박물관, 『高敞郡의 역사문화』, 1999, pp. 47~50.

이희관, 「高敞郡 龍溪里窯와 “太平壬戌”銘 瓦片 및 磚築窯 문제」, 『美術史學研究』 244, 사단법인 한국미술사학회, 2004.

마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11세기 초반 사찰이 성립하고 12세기에 최대 전성기를 맞이한 운주사에서 이와 같은 한국식해무리굽이 출토되고 있다.⁹¹⁾ 따라서 한국식해무리굽완의 시기는 10세기와 11세기 즉, 고려 전기에 해당한다. 한국식해무리굽을 둘러쌌던 암키와의 연대 또한 이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으며 이와 동일한 시점에 제작되었다고 판단되는 암키와가 I 단계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1단계는 고려전기로 판단된다.

2. 2단계

귀면을 중심으로 2개의 덩어리가 엇갈리며 조화를 이룬 운기문이 좌우대칭으로 장식된 귀면문암막새이다. II형식과 III형식이 이에 포함된다. I 단계보다 귀면의 형태를 잃은 모습으로 코와 입이 합쳐져 새의 부리와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는 귀면의 부리와 새의 발과 유사한 귀면의 발이 확인되는 등 귀면이라기보다는 조두(鳥頭)에 가깝다.

귀면문암막새 II형식은 1단계의 귀면의 특징인 들창코가 확인된다. 그러나 코볼의 폭이 1단계 보다 좁고 'V'자 형태의 극도로 생략된 입이 조화를 이룬 모습이 2단계 귀면의 특징인 부리와 유사하다. 이러한 극도로 생략된 귀면의 입을 한정된 시문공간 때문이라 판단한 경우도 있지만 그 보다는 I 단계의 협상긋은 귀면형태에서 조두 형태로 변화하기 위한 과도기적 표현이라 생각된다. 오히려 귀면의 뿔이 사라진 것이 한정된 시문공간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귀면의 귀와 수염이 눈 아래 부분에 집중되어있어 이들의 표현이 자연스럽게 위해서는 귀면의 윗부분의 시문공간을 조정해야만 한다. 귀면문암막새 II형식의 전체적인 모습은 협상긋은 귀면의 모습을 유지하려는 힘과 조두로 바뀌려고 하는 힘이 대등해서 나타난 모습이라 판단된다.

II단계 귀면문암막새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한 가지는 귀면의 발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귀면의 발은 운기문의 끝에서 뻗어 나온 것으로 귀면을 향하고 있다. 이 운기문의 형태는 I 단계 운기문과 유사하지만 I 단계와 문양구성과 말려진 방향이 다른 것으로 귀면의 발을 표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변화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문양의 시문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와범에서 문양면의 길이와 너비의 규격 또한 정해져 있다. 드림부의 길이는 30cm를 전후로 하며 높이는 5~6cm를 전후로 한다. I 단계의 당초상의 운기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귀면을 향한 발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드림부의 높이가 가 커져야 하며 당초상

91) 전주대학교박물관, 『雲住寺Ⅲ 發掘調査報告書』, 1990.

의 운기문을 길게 늘려 귀면의 발을 표현한 경우에는 드림부의 길가 길어져야 한다. 만약 드림부의 규격이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하였다면 그에 수반되는 평기와의 규격 또한 변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와는 규격이 일정하게 같아야 지붕에 올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규격이 다를 경우 서로 어울려 사용될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 없이 귀면의 발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운기문이 2개로 분리되고 I 단계의 운기문이 말리는 방향과 반대로 말려 귀면의 발이 표현되어도 충분할 만큼의 시문공간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와범에 문양을 시문하는 공인은 한정된 시문공간 안에서 효율적으로 문양을 배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2단계에서 확인되는 접합기법은 1단계 보다 다양하다. 우선, 귀면문암막새 II 형식은 1단계의 접합기법인 접합기법 I로 1단계의 접합기법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과도기적인 모습이라 판단된다. 귀면문암막새 III형식에서 확인되는 접합기법 II-1・III・IV로 세선조문의 장판타날 암키와와 무문의 암키와가 사용되었다. 세선조문의 장판타날 암키와부는 불국사 경내에서 매납 된 상태로 안정된 층에서 출토한 동이의 뚜껑으로 사용된 세선조문의 장판타날 암키와와 동일하다. 고려토기의 연구성과⁹²⁾에 따르면 불국사 경내 출토 동이는 고려시대로 판단된다. 특히, 윤철혼이 확인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이 III형식에서 확인되고 있어 1단계보다는 늦은 시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즉, 귀면문암막새 III형식-④의 암키와부는 윤철혼과 단부조정혼적이 확인되는 것으로 이중 윤철혼은 지금까지 연구성과에 따르면 ‘太平八年(1028)’명과 ‘乾統三年(1103)’명 암키와부터 뚜렷하게 확인된다고 보는 것으로 고려전기 평기와의 속성 중 하나로 언급된바 있다.⁹³⁾ 윤철혼은 1단계와 2단계의 일부 예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1단계보다 늦다고 하겠다.

92) 韓惠先, 「경기지역 출토 고려시대 질그릇 연구」, 檀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2001.

金才喆, 「경상도의 고려토기가마 연구」, 『계명사학』 15, 2004.

畿甸文化財研究員, 「華城 台安(3)地區 宅地開發事業部地內 遺跡 發掘調査 1次 指導委員會議 資料(3 地點)」, 2006.

畿甸文化財研究員, 「奉業寺」 2002.

海剛陶磁美術館, 「芳山大窯」, 2001.

國立光州博物館, 「강진 삼흥리 가마터 출토유물전」, 2006.

93) 李仁淑, 앞의 논문 2004.

3. 3단계

귀면으로 중심으로 넝쿨상의 당초문이 장식된 귀면문암막새이다. I 단계와 II 단계의 귀면문암막새와 상이한 형태로 귀면문암막새 IV형식이 이에 해당한다. 주먹코와 작게 벌어진 입, 사선으로 뺀 수염을 지닌 귀면은 험상궂은 얼굴이 아닌 해학적인 얼굴이며 귀면의 양측에 위치한 귀는 귀면의 얼굴 크기와 대등할 만큼 크게 표현되어 비례가 맞지 않는다. 귀면 보다는 수면(獸面)에 가깝다. 이에 비해 좌우 넝쿨상의 당초문은 화려하게 표현되어 있다.

암키와부 타날문양은 집선문의 장판타날 암키와로 선조문 보다 늦게 등장하는 문양이다.⁹⁴⁾ 따라서 IV단계 또한 고려시대 귀면문암막새일 가능성이 있고 암키와부의 타날문양을 통해 I · II단계 보다 늦다고 볼 수 있겠다. 더욱이 뚜렷한 사절흔과 함께 단부조정 흔적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늦은 단계의 귀면문암막새라 하겠다.

94) 최정혜, 「高麗時代 평기와의 編年研究 -文樣形態를 中心으로-」, 경성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VI. 맺음말

본 논문은 경주대학교박물관이 2004년도에 실시한 경주 불국사 경내 성보박물관 건립예정부지 발굴조사에서 출토 총 147점의 암막새 중 124점의 귀면암막새를 대상으로 그 시기와 변천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먼저, 귀면문암막새의 다양한 속성 가운데 드림부 문양, 접합기법, 크기, 색조, 소성도, 태토 등의 속성을 살펴보았다. 이중 귀면문암막새의 변천을 가장 잘 보여 준다고 판단되는 드림부 문양을 중심으로 4가지 형식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기초로 앞서 살펴본 속성들과 함께 암키와부의 타날문양·요면 특징을 참고하여 3단계를 설정 하였다.

I 단계는 협상국은 귀면을 중심으로 당초상의 운기문이 장식되어 있는 귀면문암막새로 윤철흔이 없는 태선조문의 장판기와의 암키와부로 사용되었다.

II 단계는 조두형의 귀면을 중심으로 2개의 덩어리로 분리된 운기문이 장식되어 있는 귀면문암막새로 윤철흔이 확인되지 않는 세선조문의 장판기와의 윤철흔이 확인되는 무문의 기와가 암키와부로 사용되었다.

III 단계는 수면형태의 귀면을 중심으로 당초문이 장식되어 있는 귀면문암막새로 윤철흔이 확인되는 집선문의 장판기와의 암키와부로 사용되었다.

이 중 선조문의 암키와부가 확인되는 I·II 단계보다 집선문의 암키와부가 확인되는 III 단계가 가장 늦다고 판단되며 I·II 단계는 윤철흔이 없는 암키와부만 확인되는 I 단계 보다 윤철흔이 없는 암키와부와 윤철흔이 있는 암키와부가 함께 확인된다는 점에서 I 단계가 II 단계보다 빠르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불국사 경내 출토 귀면문암막새는 I 단계 → II 단계 → III 단계로 변하는 듯하다. 이는 협상국은 귀면의 얼굴에서 조두의 얼굴 마지막 짐승의 얼굴로 변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귀면문암막새는 암키와부로 장판기와의 상용되었다는 점에서 고려기와의로 판단되며 I 단계의 암키와부와 동일한 특징을 지닌 암키와가 한국식해무리굽완과 함께 매납유물로 출토되었다는 점, II 단계의 암키와부와 유사한 특징을 지닌 암키와가 고려시대로 편년되는 동이의 뚜껑으로 사용되어 매납유물로 출토되었다는 점, ‘太平八年(1028)’명과 ‘乾統三年(1103)’명 암키와부터 확인되는 윤철흔이 I 단계 암키와부와 II 단계의 일부 암키와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고려전기 막새기와의로 판단된다.

끝으로 맺음말에서 본 논문이 가진 문제점과 귀면이 확인되는 암막새를 검토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현재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불국사 경내 유적의 발굴조사 당시 극히 적은 수량이지만 통일신라 유물이 확인된 것으로 이에 대한 재고의 여지가 있다.

- ① 발굴조사 당시 대다수가 유물은 고려시대가 중심이었다.
- ② 고려시대 이전의 하층유구가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 ③ 통일신라 유물의 대부분은 발굴조사 초반에 다수가 확인되었고 지표층에 가까운 부분에서 출토되었다는 점 그리고
- ④ 건물지에서 확인된 매납토기들의 C-14연대에 결과가 고려시대가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건물이 세워지는 것과 토기가 매납되는 순서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고려시대로 판단되는 매납토기가 먼저 묻혀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듯하다.
- ⑤ 조사구역에서 가장 안정된 층인 어두운 황갈색의 모래점토 속에서 중국자가편, 고려자가편, 선조문의 장판인 고려기와가 출토 되었다.

둘째, 불국사와 불국사 경내 유적의 관련성 문제이다.

이는 불국사 본영에서 출토된 귀면문암막새와 동형의 것이 불국사 경내 유적에서 다수확인 되었다는 점에서 유적이 불국사 사역에 포함되고 암막새의 시기가 통일신라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당간지주의 위치를 근거로 할 때 현재의 불국사 입구와 과거의 입구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 불국사 본영의 내의 건물축과 불국사 경내 유적에서 확인된 건물축이 다르다는 점, 불국사 경내 유적의 발굴조사 당시 직접 그곳에서 확인한 자연지형은 불국사와 유적 사이에 수량이 많은 큰 계곡이 흐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또한 유적에서는 ‘仇於駟’명 명문기와가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이곳에 ‘역’ 관련 유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불국사와는 별개의 유적이라 판단 할 수 있다. 이는 산속에서 ‘옛 길 1’와 ‘옛 길 2’라고 명명한 ‘길’유구가 확인되었다는 점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국내 문헌

國立中央博物館, 『井內功寄贈瓦甄圖錄』, 1990.

國立慶州博物館, 『新羅瓦塼』, 2000.

慶州大學校博物館, 『慶州 佛國寺 境內 聖寶博物館建立豫定敷地 發掘調査報告書』, 2006.

慶州市,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1976.

金才喆, 「경상도의 고려토기가마 연구」, 『계명사학』 15, 2004.

金東賢 외, 『新羅의 기와』, 東山文化社, 1976.

김성구, 「한국 와전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국 기와연구의 회고와 전망』 제1회 한국기와학회 학술대회 발표문집, 2004.

———, 『옛기와』, 대원사, 2000.

金永喆, 「韓國의 鬼面紋樣 研究-기와에 나타난 귀면문양을 중심으로-」, 『全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1.

金昌鎬, 「後三國時代의 기와에 나타난 麗·濟의 地名」, 『韓國中世史의 諸問題』, 2001.

———, 「夫餘 外里출토 文樣塼의 연대」, 『佛教考古學』 第2號, 威德大學校博物館, 2002.

金泰根, 「驪州 元香寺址 出土 막새瓦의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3.

金必淑, 「막새의 接合技法에 관하여」, 『年報』 第8號,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1997.

남진주, 「尙州 靑里 高분 출토 청자 편년 연구」, 『美術史學研究』, 2000.

盧潤相, 「新羅時代 蓮花文수막새 研究-慶州地域 寺址發掘出土品을 中心으로-」, 東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2005.

文化財管理局 慶州史蹟管理事務所, 『高仙寺址 發掘調査報告書』, 1977.

박 옥, 「신라의 귀면문와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朴銀卿, 「高麗 瓦當文樣의 編年 研究」, 『考古歷史學志』 第四輯, 東亞大學校博物館, 1988.

朴恩辰, 「芬皇寺 출토 수막새에 관한 研究 -문양과 제작방법을 중심으로-」, 東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4.

朴洪國, 「三國末, 統一初期新羅瓦塼에 대한 一考察」, 東國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6.

———, 「新羅 同紋異形 막새기와에 대한 小考」, 『古文化』第57輯, 2002.

徐五善, 「韓國平瓦紋樣의 時代的 變遷에 對한 研究」, 忠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

申昌秀, 「皇龍寺址 出土 新羅기와의 編年」, 檀國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6.

宋香珍, 「新羅 鬼面文樣에 대한 研究」, 『慶州史學』第2輯, 東國大學校 慶州大學 國史學會, 1983, pp. 67~94.

이남규, 「경기지역 고려시대 건물지 조사의 성과와 과제」, 『역사문화논총』창간호, 역사문화연구소, 2005.

영남대학교박물관, 『隱逸의 秀麗한 꿈 -新羅瓦當-』, 2005.

李仁淑, 「統一新羅~朝鮮前期 평기와 製作技法의 變遷」,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4.

———, 「고려시대 평기와 제작기법의 변천」, 『서울경기고고학회 학술대회 -고려시대의 고고학-』, 2006.

李喜寬, 「韓國 靑磁製作의 開始時期問題에 대한 諸說의 檢討」, 『白山學報』第70號, 2004.

李鍾玟, 「韓國의 初期靑磁 研究」, 益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2.

———, 「靑磁窯址 發掘調査の成果と檢討」, 『考古學論集』6号, 2005.

林明澤, 「統一新羅 鬼面瓦에 관한 研究 -내림새막새기와를 中心으로-」, 檀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2.

劉蘭姬, 「統一新羅時代 鳥文막새에 대한 一考察」, 蔚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4.

尹根一, 「統一新羅時代 瓦當의 製作技法에 關한 研究 -雁鴨池出土遺物を 中心으로-」, 檀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7.

尹容鎮, 『大邱龍水洞瓦窯址調査報告書』, 1986.

尹龍熙, 「南漢江流域 出土 高麗前期 평기와 考察 -驪州 元香寺址 출토기와의 分析을 中心으로-」,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1.

장남원, 「고려시대 陶瓷의 연구현황과 과제」, 『서울경기고고학회 학술대회 -고려시대의 고고학-』, 2006.

丁晟權, 「惠陰院址 出土 막새기와에 대한 考察」, 『文化史學』第19號, 2003.

鄭明鎬, 「기와장 崔相文의 조선전통기와 제조법」, 『淸大史林』, 1994.

趙成模, 「韓國 傳統기와 制條工程에 關한 研究」, 圓光大學校 產業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5.

趙成允, 「慶州 出土 新羅 平기와의 編年 試案」, 慶州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2000.

——, 「古新羅 有段式기와에 대하여」, 『古文化』第57輯, 2002.

——, 「慶州 出土 中板 打捺文樣 평기와의 製作時期와 그 意味」, 『佛教考古學』2, 2002.

——, 「新羅 長板 打捺文樣 평기와의 慶州 製作與否에 대하여」, 『梨花史學研究所』第30輯, 2003.

——, 「慶州 皇龍寺址 出土 統一新羅時代 瓦의 研究 課題」, 『기와를 통해 본 ‘미륵사와 황룡사’』, 제2회 한국기와학회 학술대회 발표문집, 2005.

崔仁善, 「順天 金菴寺址 出土 기와와 土器」, 『文化史學』第9號, 1998.

崔英姬, 「江原地方 高麗時代 평기와에 관한 研究」, 檀國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3.

최문환, 「과주 해음원지 출토 막새기와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崔晶惠, 「高麗時代 평기와의 編年研究 -文樣形態를 中心으로-」, 慶星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6.

——, 「東平城址 築造 時期에 대한 考察 -평기와의 打捺文樣 變遷을 中心으로-」, 『博物館研究論集』10, 釜山博物館, 2003.

崔兌先, 「平瓦製作法の 變遷에 대한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請求論文, 1993.

許興植, 「佛教思想史에서 본 고대의 起點과 終點」, 『韓國史의 時代區分-古代・中世』, 1995.

洪亨雨, 「將島 淸海鎮 遺跡의 考古學的 考察 -土器, 기와 城壁築造技法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허홍식, 「불교사상사에서 본 고대의 기점과 종점」, 『한국고대사연구』8, 1995.

-국의 문헌-

<일본 논저>

吉井 秀夫 外, 「韓國慶州地域寺院所用瓦の研究 -岬山寺所用瓦の考察」, 『青丘學術論集』第4集, 1994.

——, 「新羅の文字瓦-光州廣域市武珍古城採集瓦を中心として-」, 『朝鮮古瓦

考』帝塚山考古學談話會第555回記念，帝塚山考古學研究所，1996.

高 正龍，「新羅頸部施文瓦の製作技法-統一新羅瓦の編年にむけて-」.

———，「新羅古瓦についての覺書-ひろたコレクションの資料調査を通して-」，『研究紀要』第6号，京都市埋藏文化財研究所，2000.

———・南孝雄，「高麗美術館所藏朝鮮古瓦」，『高麗美術館』52号，2001.

———，「新羅文様磚製作技法」，『立命館大學考古學論集Ⅲ』，2003.

龜田修一，「朝鮮半島から見た豊前の寺院と古瓦」，『古文化談叢』第34集，九州古文化研究會，1995.

———，「日韓古代瓦研究」，『第4章 百濟滅亡後の夫餘地域の瓦 -百濟寺院のその後-』，2006, pp. 204~236.

毛利光，「日本古代の鬼面文鬼瓦-8世紀を中心として-」，『研究論集』Ⅵ，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1980年.

浜田耕作・梅原末治，『新羅古瓦の研究』，京都帝國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報告書 第13冊，昭和9年(1934).

北九州市立歴史博物館，『新羅の古瓦磚』，1975.

上原眞人，「古代末期における瓦生産体制の変革」，『고대연구』13・14 春の号，1978.

———，「十一十二世紀の瓦當文様の源流」，『古代文化』32-5・6，1980.

———，「天平12, 13年の瓦工房」，『研究論集Ⅶ』，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學報 第41冊，1985.

———，「平安貴族瓦葺邸宅に住んでいなかった -平安京右京一條三坊九町出土瓦をめぐつてと-」，『歴史學考古學』，高井悌三郎先生喜壽記念論集，1988.

杉山信三，「高麗瓦譜」，『月刊 韓國文化』，1987.

石田茂作，「日本の鬼瓦について」，『鬼面紋瓦の研究』，井内古文化研究室，1967, pp. 65~80.

森 郁夫，『瓦』，2001.

井内 潔，「新羅棟端飾瓦の展望」，『鬼面紋瓦の研究』，井内古文化研究室，1967, pp. 41~64.

帝塚山考古學研究所，『朝鮮の古瓦を考える』，1996.

千田 剛道，「高句麗・高麗の瓦-平壤地域を中心として-」，『朝鮮古瓦考』帝塚山考古學談話會第555回記念，帝塚山考古學研究所，1996.

清水信行，「韓國論山郡開泰寺出土の軒平瓦製作技法について」，『青山史學』第16号，1998.

——, 「開泰寺址 출토 銘文瓦에 대한 一考察」, 『百濟研究』第28輯, 1998.

村田治郎, 「中國建築にの用いられた鬼面紋史概説」, 『鬼面紋瓦の研究』, 井内古文化研究室, 1967, pp. 1~40.

<중국 논저>

陳良偉, 「洛陽出土 唐宋時期 瓦當의 類型學研究」, 『기와를 통해 본 고대 동아시아 삼국의 대외교섭』, 2000.

錢國祥, 「中國 魏晉南北朝時代の 瓦當」, 『기와를 통해 본 고대 동아시아 삼국의 대외교섭』, 2000.

Change Process of the earlier Goryeo the Female Roof-End Tiles with Monster-Mask design excavated in the Bulguksa archaeological expedition

Kim, You Sung
Department of Cultural Assets
The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Chang Ho)

(Abstract)

In this thesis, I will look at the change of the female roof-end tiles of monster-mask design and the chronological of them. To do, I will analyze one hundred twenty-four pieces of them which were collected from 147 female roof-end Tiles in the Bulguksa archaeological expedition (under the Bulguksa) carried out by Gyeongju University Museum between 2003 and 2004.

I investigated the attribute of them as design, bond techniques, size, color, firing tiles of temperature and clay. Based on design that is most notable of the attribute, I divided them into four types. In the basis of design, paddle-beat pattern of female roof-tile and inside attribute, I classified the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is as follows: It was to designed cloudiness of arabesque pattern in a circle around a grim monster-mask. It is used together paddle-beat pattern of female roof-tile that is a thick line and no a horizontal hollow in the inside of a concave roofing.

The second stage is as follows: It was to designed cloudiness separated in a circle around a beak shaped monster-mask. It is used together paddle-beat pattern of female roof-tile that is a thin line and no a horizontal hollow in the inside of a concave roofing. Unlike this roof-tile, It was the horizontal hollow in the inside of a concave roofing that of no design.

The third stage is as follows : It was to designed arabesque pattern in a circle around a fierce beast shaped monster-mask. It is used together paddle-beat pattern of female roof-tile that is a mass line and a horizontal

hollow in the inside of a concave roofing.

In these stage based on paddle-beat pattern of female roof-tile, the line is early than a mass line. And based on the horizontal hollow in the inside of a concave roofing, to be no a horizontal hollow is early than to be its. Therefore I estimate a relative chronological order pattern of the female roof-end tiles of monster-mask design: The first stage → The second stage → The third stage, and these stages was produced during the Goryeo Dynasty so that large-sized paddle-beat pattern roof-tile have in all.

The first stage have been excavated together the Celadon Bowl with a halo shaped foot that was produced during the Goryeo dynasty.

The second stage have been excavated together vessel that was produced during the Goryeo dynasty.

In the basis of the roof tiles to be made in 1028 and 1103, they have not horizontal hollow in the inside of a concave roofing.

In conclusion, female roof-end tiles of monster-mask design were produced in the Gyeongju Area during the earlier Goryeo dynasty.